

푸른신문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제1,179호

달서 · 달성 지역신문

창간: 2000년 10월 31일 / 주간

T.053)572-6000

최대 100%국비지원 교육생모집
대한직업전문학교
 [부설] 대한직업기술학원
 전기기능사(산업)기사 기능장 / 승강기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기사 / 에너지관리기능사 기사
 보일러(에너지)배관설비기능사 기능장 / 직업상담사
F4비자취득반
 운수운송기능사 / 방송기능사 / 건축도장기능사
 구직자 · 산재근로자 · 제대군인 · 국민취업제도참여자와 내일배움카드소유자
교육상담 053)655-0177
 지하철1호선 송현역 3번 출구 앞

Coffee bite.
 호주식 커피전문점
Coffee bite.
 감삼점 070.8911.2222

감삼동 찌개집
 달서구 당산로41길 120
070-8911-1111

2021 제15회 전국문화사진 초대작가전

김종수	임재현	안재용	도재호	이화선
최덕순	이예경	정정대	김순동	유병완
이해순	박정일	박창수	강계순	권상원
권영식	권태영	권혁대	김광자	김영자
김영주	김옥경	김이화	김진후	노선하
도해경	문순덕	박경석	박경숙	박보경
손성락	손희영	여광웅	이기백	이동진
이명숙	이석영	이순자	이윤희	이태남
이정희	이제동	이지선	이춘화	이태진
이항일	이희숙	임승규	전순희	전태규
정용환	정홍규	조경재	조무제	조현아
최병우	최병찬	최혜수		

■ 기간 : 2021. 07. 19.(월) ~ 07. 24.(토)
 ■ 장소 : 달서구문화원 달서갤러리
 ■ 주최 : 대구광역시달서구문화원
 ■ 주관 : 전국문화사진초대작가회
 ■ 후원 : 달서구 · 달서구의회, 푸른방송(주), 푸른신문, 한국문화원연합회

‘주원김밥’을 빼고, 서남시장에서 김밥의 맛을 논하지 말라

비트와 무를 가늘게 채 썰어서 절여 새콤달콤한 맛을 내는 이 가게만의 노하우는 노란 단무지에 김밥이라는 공식을 무색하게 하는 특별함이 숨어 있다. 여기에 비트 특유의 보랏빛과 당근과 우엉, 계란, 시금치의 색깔이 잘 어울려 보는 즐거움에 건강까지 책임지고 있다.

재료 준비도 힘들거니와, 비트와 무로 단무지를 대신한다는 발상 자체가 대단하다 여쭙니.

“우리 딸 아이가 대학에서 임상영양학을 전공해서 이런 거 잘해요”라며 비트도 그렇고 인터넷 홍보도 모두 딸 아이의 작품이라며 뿌듯해하셨다.

필자가 주원김밥을 처음 방문한 때는 4~5년 전쯤으로 기억된다. 서남시장 3~4평 남짓한 조그마한 가게에 인정 많게 생기신 내외분이분식점을 여셨다. 우동, 국수, 김밥, 칼국수라는 작은 메뉴판이 눈에 띄어 처음 맛본 우동과 김밥은 여느 음식과는 사뭇 남달랐다는 기억이 있다.

‘사모님의 음식솜씨가 보통 아니구나’

4인 식탁이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로 가게가 작다 보니 점심시간에 밀려드는 손님을 감당할 재간이 없어 건너편 지금의 가게에 자리 잡게 되었다.

처음부터 크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든 찰나에 10년 전쯤 유통단지 혼수백화점에서 식당을 크게 하신 큰손 사장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모님은 평소에도 음식 솜씨가 좋아서 주변 사람들이 식당 하면 대박 날 거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한다. 때마침 남편분이 정년퇴임을 하고 쉬시든 와중에 유통단지 내 장사가 잘 안되는 식당이 있다는 말을 듣고 과감하게 시작하셨다고 한다.

사모님의 음식 솜씨는 금세 빛을 발하여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셨다고 한다. 사모님은 음식점이 처음이고 사장님 또한 교육공무원으로 평생 재직하다 퇴임하다 보니 매일 넘쳐나는 손님들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2년 정도 하다가 가게를 넘겼다고 한다. 아!~ 그래서 서남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시작한 연유가 이해도 되면서도 한편으

로 많은 손님이 아깝다고 하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몸이 배겨낼 재간이 없어”라시며 손사래를 치셨다.

지금도 그 당시 단골손님들이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자주 찾아오시고 단체로 김밥 주문도 많으시란다.

이뿐만이 아니다. 멸치, 다시마, 무 등을 넣고 찐하게 우려낸 뜨거운 육수는 “아~ 시원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사장님의 정성이 듬뿍 담긴 육수 덕분에 잔치국수, 칼국수 그리고 찹쌀 수제비는 개운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이다.

무더운 여름에 신선한 야채가 담긴 비빔국수랑 김밥을 한입 가득 먹어도 좋고 시원한 잔치국수 육수에 김밥을 꼭 담가 면치기 해보시길 권해 드리는 바이다.

정일 기자

[I I I I]
M T G.
 coffee & bakery
 대구 달서구 감삼남길 144 1층 엠티지

SHIN Woo advertisement
신우애드
 간판·현수막·인쇄·판촉물·시공전문 업체
 Tel 010-7563-4454 Fax 070-7502-4200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 72길 18 (비산동 531-8)

소도독 대구용산역점
 예약문의 053-567-8116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 811-6

정부지원사업, 알고 계시나요?

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소송 및 변호사 비용 지원!

[무료법률지원사업] 보증금 / 임대차 / 신용불량 / 상거래 소송 등

☎ 국번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국비지원사업] 마케팅 / 메뉴개발 / 법률 등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재활용 사업대상
청년 창업지원 최대 1,500만 원 지원!

[업사이클 청년창업 지원사업] 신청기간: 8월 3일~8월 5일까지

☎ 053-719-6012 (대구 경북디자인센터)

※ 정부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푸른방송과 푸른신문이 지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 우리 지역 달서구 달성군의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 기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기획 기사를 통해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민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필요하신 분은 푸른방송 551-2000, 푸른신문 572-6000로 연락 주십시오.

- * 1.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푸른신문에 제보해 주신 기사가 게재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15면 상세 내용 참조
- * 2. 사랑하는 사람, 보고싶은 사람, 고마운 분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세요.
사연과 관련 사진, 동영상 등을 푸른방송 제작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gcsup@gcs.co.kr)

푸른방송
홈페이지 QR코드



푸른신문
홈페이지 QR코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감삼동 주민 반대’ 여론 강해 난항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2일 감삼동 일원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발표했다.

감삼동 일원은 이미 주민들 주체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정비예정구역 지정 반대 의견이 있어 지난 4월 20일 신규선정 후보지안이 보류 결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대구시는 달서구청에 해당 사업 부지를 국토교통부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3차선도사업에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달서구청이 4월 말 신청해 감삼동 일원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에 감삼동 주민들은 이번 후보지 선정에 있어 주민들과 상의 한번 없이 진행되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대국 LH재개발반대비상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공공재 개발 지정 전에 우리 주민들과는 사전에 상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국토부에서 밀어붙여 우리 주민들의 민심은 지금 폭발 일보 직전에 와있다. 이걸 왜 정부에서 대구시에서 또 달서구청에서 왜 이걸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하루라도 빨리 3080 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가 철회돼서 우리 감삼동 주민들이 안전한 집에서 좀 수월하게 편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철회)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흥렬 LH재개발반대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구시청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30~40년 이웃 간에 참 평온하게 살아왔는데 이 지역을 갑자기 LH라는 공기업에서 개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희 주민들에게 사전에 전혀 얘기도 없었고 소통에 기회도 주지 않았다. 지금 현 정부가 지금 시청 또 달서구청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은 지금 너무 분노하고 당황스럽고 이 30~40년 살았던 곳을 참 정들었던 곳을 떠나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있다. LH가 저희들에게 보상을 해준다 대가를 준다 아파트를 준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주민들과 대화 속에서 분명하게 밝혀야 되며, 이때까지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달서구청이나 시청에서도 이 지역이 개발한다는 얘기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LH가 개발한다는 얘기를 하 루아침에 발표했다. 정말 우리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 밖에 안

되고 우리 감삼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권을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지난 6월 2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도 LH관계자의 전반적인 사업설명이 있었지만 주민들의 호응을 얻진 못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LH관계자는 이 사업은 주민의 동의가 없다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참석한 주민들은 LH에 신뢰성에도 의문이 든다며, 일방적인 공개발 계획 통보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감삼동 일부 주민들은 공공개발 반대 집회 및 서명운동을 가졌으며 대구시와 달서구청에 항의하는 등 감삼동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강해 난항이 예상된다.

비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950여 세대 중 500여 세대에 후보지 철회 동의서를 받은 상태라고 한다.

감삼동의 경우 30년 이상 집 한 채로 평생 거주한 장기주택 보유자가 다수이고, 전·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도 많이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오랫동안 감삼동에 터를 잡고 사시던 분들이 재개발이 이뤄지면 생활, 거주권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것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주민의 절반이 반대하면 지구 지정을 철회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산진구 전포 3구역 주민들이 후보지 철회 동의서 52%를 받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동승 기자

순수 국내산 1등급 한우 9,900원! 오늘도 한우

분리동 허병원 삼거리 도로가 한쪽에 소가 웃고 있는 간판이 보인다. 오늘도 한우. 갈빗살 9,900원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는 곳이다.

들어서니 소고기집 특유의 기름 냄새가 식욕을 자극한다. 메뉴판에는 결정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단순하다.

메인 메뉴인 갈빗살을 3인분 주문을 한 후에 사장님께 여쭙는다. “사장님, 1등급 한우인데 어떻게 가격이 이럴 수가 있죠?” 아주 태연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정확히는 1등급 이상 한우를 사용하고, 꼭 필요한 기본 상차림만으로 재료를 줄였기 때문에 가능해요” 똑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열 번 이상은 들어서 로봇처럼 자동으로 설명 나온다고 하신다.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겉절이, 소금, 쌈 채소, 쌈장, 그리고 갈빗살 상차림은 이걸로 전부였다. 손님이 적은 오후에 방문한 덕분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잘 익은 갈빗살 한 점과 그 위에 생고추냉이를 조금 올려주시더니 “첫 점은 이렇게 드셔보시면 한우의 풍미를 더욱 느낄 수 있어요” 처음 오시는 손님들에게 항상 권해드린다고 보통 소금에 찍어 먹던 버릇이 있었는데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었다.

코다리찜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지인들과 가격이 저렴한 소고기집에서 회식을 한 후 그때의 맛과 가격, 고기 품질의 매력에 끌려 “나도 우수한 품질의 소고기를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결심을 하셨다고

1년간의 준비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며 지금은 3개의 체인점까지 점포를 늘리셨다고 하신다. 오픈하고 지인들과 몇몇 단골들이 혼자만 운영하기에 아깝다며 본인들이 직접 체인점 주가 되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분들 믿고 더욱 책임감 느끼고 좋은 재료에 대한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려 1등급 이상 아닌 고기는 사용하지 않으신다. 직접 고기 손질을 하시며 부위마다 맛과 식감이 다르다고 알려주신다.

한쪽 벽면에 ‘1등급 한우’라고 적혀있는 영수증들이 뽀뽀하다. “저 영수증들이 저의 자부심이고 자존심이에요” 한눈에 봐도 수백 장은 되어 보

인다. 직원분들의 유니폼에 ‘한우 더 비쌀 필요가 없다’ 등에 써어 있는 저 말이 사장님의 모든 말을 대신하는 것 같다.

맛을 속이는 순간 손님들이 먼저 알고 찾지 않는다는 것과 원재료 값이 오르더라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가맹점주분들과 상생하며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 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배도 채웠지만, 마음도 든든해져서 걸어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여환명 기자

☎ 오늘도 한우: 대구시 달서구 외룡로7
☎ 053-526-9696

달서구,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대구·경북 유일 '최우수 수상'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6일 대전 호텔ICC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일자리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2018~21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 8,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전국 243개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 및 일자리창출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리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일자리 시상식이다.

올해 평가는 2020년 일자리 대책에 따른 성과뿐만 아니라 업무추진 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 및 질적 요소 등 7개 분야 21개 지표에 따라 1차 시·도심사와 2차 중앙심사로 진행됐다.

달서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안정화를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공공일자리 발굴에 적극 노력해 목표 대비 148.8%를 초과달성했다.

특히 단기·소모성 사업이

아닌 참여자들에게 기술 습득을 통한 일 경험을 지원한 업사이클 희망일자리 사업이 이번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뽑혔다. 일자리 인프라 확충을 통한 체계적인 창업 지원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달서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공유주방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지난해 연달아 개소하여 기술·지식서비스 분야 기업을 육성하고 공유경제 및 공유문화 시장 확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한 점



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성서 산단 내 기업의 미래 인력수요에 대응한 SMART공장 운영관리자, 기계·금속·자동차분야 급형기술과 생산·품질관리자 등 인력양성사업 성과도 돋보였다.

아울러 청년 해외취업 지원, 계층별 틈새 일자리 발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지역 최초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 추진 등 어려운 지역 고용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

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긍정평가를 받았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4년 연속 수상은 우리 구가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쏟아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앞으로도 구정의 모든 역량을 모으고, 지역일자리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차별화된 일자리 창출로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달서구청>

다운나 스튜디오 전현교 대표

제품을 빛내는 '단 하나의 명품사진'

SNS의 대세인 요즘에는 누구나 사진을 찍습니다. 맛있는 음식점에 가도 이쁘게 찍고 이쁜 옷을 입고 좋은 화장을 했을 때에도 이쁘게 찍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진들은 사용자 중심에서 찍습니다. 내가 경험한 요리와 상품들이 만족스러울 때 우리는 SNS에 사진을 찍고 올려서 자랑합니다.

하지만 상품의 입장에서 알고자 하는 사진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좋은 빛을 적당히 주고, 구도와 배경을 맞추고, 상품에 알맞은 색깔과 톤을 줘야 합니다. 이렇게 상품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사진으로 표현하는 업체가 우리 지역에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성서네거리 이노비즈타워에 위치한 '다운나 스튜디오' 전현교 대표입니다.

전현교 대표는 음식이나 화장품 등 각종 제품을 전문으로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음식 촬영은 요리하고 나오는 순간이 가장 맛있기 때문에 그 가게에 출장을 가서 촬영하고, 화장품과 같은 각종 제품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진은 누구나 찍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지 않냐는 질문에 보통은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제품과 관련해서도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이 보통 사람들 눈에는 이쁘게 보일 때도 있는데 "자신을 대표하는 명함 사진을 찍을 때 휴대폰 셀카로 대충 찍나요? 제품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라며 제품 사진은 다른 영역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제품 사진은 어떻게 찍는지 여쭙봤는데요. 전현교 대표는 제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것이 먼저라고 합니다. 음식의 경우 이 음식이 뜨거운지, 매운지 맛도 먼저 보고, 어떤 분들이 좋아할지도 고민해 본다고 합니다. 화장품일 경우에는 직접 발라보고 마케팅 타겟은 어떻게 되는지 판매처는 어디로 잡았는지 발라본 후의 느낌 들고 디자인을 어떻게 살려야 할지 등 여러 가지



를 고민하고 난 이후에 정확한 콘셉트를 잡고 촬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콘셉트가 잡혔다고 해도 촬영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다고 합니다. 빛의 양에 따라 사진이 달라지고, 조명의 위치와 카메라의 각도, 렌즈의 설정 등 하나의 제대로 된 사진을 찾아내기 위해 1시간 이상 백여 장이 넘는 사진을 찍어야 한답니다.

이 백여 장이 넘는 사진들 하나하나가 다 다른 느낌이고 진짜 원하는 한 장을 선택하는 것이 제품 사진을 찍는 방법과 과정이라고 합니다.

전현교 대표와 사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니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정말 본인 사진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르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제품 사진을 찍으시는지 여쭙봤는데요. "보통 제품 사진을 찍다 보면 사장님들이 기대치가 높습니다. 이유는 그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고 제품을 만든 거거든요. 제가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구매해

주시는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달라지니 절대로 대중할 수 없는 작업이 제품 사진 촬영입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이 사진도 그런 것 같아요."

전현교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품 사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사활을 걸고 제품을 만든 사장님들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 하니 제품 사진에 들이는 노력이 어느 정도 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은 누구나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제품 사진은 정말 다른 영역입니다. 자신의 사업을 키우고 싶고 음식이나 제품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싶은 우리 지역 사장님들께 '다운나 스튜디오'의 전현교 대표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최윤석 기자

☎ 다운나 스튜디오
달서구 달서대로559 이앤씨 이노비즈타워 8층
전현교 대표 010-3805-2540
www.daonastudio.com

멋진 실버들이 전수하는
잘 늙는 비법



젊은 그대!

나이아가라

초특급 웰메이징! 실버세대 멘토링 프로그램!

4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50분 **Gtv** 첫방송!
| MC 박영진 |

달성군, 유해 외래어종 퇴치행사

달성군은 무분별하게 번식하는 유해 외래 어종을 퇴치하고 우리나라 토종 어종을 보호하기 위해 옥연지 송해공원에서 유해어종 퇴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해어종 퇴치 행사는 베스, 블루길 등 유해어종으로부터 우리나라 토종 어종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번식을 막아 토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취지로, 지난 달 6월부

터 매월 첫째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열리고 있다.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행사는, 옥연지 생태계의 건강과 수질보호를 위해 고유어종은 포획 시 다시 방생하고, 인조미끼와 친환경 미끼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당일 포획한 유해어종에 대해서는 kg당 5,000원,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달성군에서 수매해 폐기 처리하

고 있다고 밝혔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낚시 동호인들은 손맛도 보고 유해어종 퇴치에도 한몫을 할 수 있어 좋은데, 여기에 작지만 용돈벌이까지 된다고 하며, 자주 찾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은 유해어종 외 붉은귀 거북은 마리당 5천 원, 뉴트리아는 마리당 2만 원씩 매수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하천, 습지 등에 대량으



로 서식하는 외래종을 지속적으로 퇴치하여 토종 생물의 서식지 환경을 개선해 나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재경 기자

젊은 열정과 패기로~ ‘피자 파는 집’ 성서점

대한민국의 대표 간식 둘을 꼽으라면 피자가 빠질 수 없는 시대다.

우리 주변만 해도 정말 많은 피자집이 있다.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유명 브랜드 피자부터 골목골목 이름 없는 피자집까지 말이다.

여기 이제 1년도 안된 새내기 젊은 사장님이 운영하는 ‘피자 파는 집’이 있다. 가게를 열자마자 코로나를 맞았다. 그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필요조차 없이 힘들었겠지만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연다.

손님 없는 적막한 가게에 지나다 들렀다며 단골한 분이 간식을 놓고 간다. 또 조금 있으니 장사 잘 되냐고 얼굴을 들이밀며 파이팅을 전하는 옆집 가게 사장님. 이런 이웃들의 소소한 정겨움도 감사하다며 웃음 짓는 새내기 사장님이다.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도전하기 좋은 시기라면서 말이다.

피자집의 맛의 포인트는 토핑과 도우의 숙성이 다.

토핑과 도우의 밸런스를 조절하는 것!

그것이 맛의 비결이라는 사실. 토핑이 푸짐하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너무 많이 넣어 먹을

때 마다 떨어져 도우와 어울리지 않는 것은 과유불급!

도우의 경우는 해동-숙성-반죽의 과정이 중요한 포인트다. 해동 후 숙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도우 특유의 밀가루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누구나 아는 이 사실을 실제에 적용하고 자기만의 스킬을 가지는 것이 최고의 맛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도 지지 않고 그저 열심히 묵묵히 만들 뿐이다.

이 젊은 사장님, 가게가 잘 되든 안 되든 스스로 꾸준한 노력으로 연구해나가자고 다짐하며 시작했다고 한다. 그래서 매일매일 피자가 손님 앞에 나가면 학창시절 성적표가 나오는 날처럼 긴장되고 또 설렌다고 한다.

장사를 하다 보면 웃지 못할 경우도 많았다고 어떤 날은 온라인 주문이 들어와 피자를 만들어 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찾으러 오지 않는 손님, 대뜸 거친 반말로 주문을 시작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도 장사를 배우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오늘도 도우 상태를 꼼꼼히 들여다본다.

그리고 자기와 같이 젊은 창업자들에게 쉽게 도전한 게 아니니 좌절도 쉽게 하지 말자고, 지금의



시련은 미래를 위한 발돋움이라 생각하고 처음 시작할 때의 젊은 열정과 패기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버티자고 한다.

“우린 아직 젊고 앞으로 더 많은 실패와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 이라고.

박정민 기자

신규창업음식업소 개업했어요

제공: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 달서구지부



마장동 더 육회

대구시 달서구 와룡로10길 70(본동)
☎010-8648-3444



윤태근 춘천닭갈비

대구시 달서구 용산로24길 8(감삼동)
☎010-8587-5801



부산어묵(모다점)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5길 12(호림동)
☎053-586-6260

달성군체육회 ‘특수법인 출범식’ 개최

달성군체육회가 지난 9일 (금) 호텔아젤리아에서 특수법인으로서의 새 출발을 알리는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영섭 달성군체육회장, 김문오 달성군수, 추경호 국회의원, 구자학 군의회의장을 비롯해 체육회 임직원 및 종목별협회장들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는 달성군체육회의 법인출범을 축하했다.

2016년 통합체육회로 출범한 달성군체육회는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를 골자로 하는 국



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되자,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4월과 5월에는 창립총회개최와 달성군의 인가를 거쳐 최종

법인설립을 마쳤다.

이영섭 달성군체육회장은 “체육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법인으로서 첫 출발을 내딛는 이 자리가 감격스럽다”

며, “특수법인인 달성군체육회는 법률이 보장하는 법적지위와 권리를 갖게 되어 보다 안정적인 체육회를 운영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를 통해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경 기자

알싸한 파채와 치킨, 치즈님!!!! ‘파닭에파무쳐’ 성서계대점

오늘의 맛집은 서민들의 1등 간식,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 치즈님! 바로 치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치킨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치킨이 아닌 싱싱한 파채와 먹기 좋게 뼈를 바른 순살 치킨을 함께 버무려 먹는 일명 파닭이라고 불리는 치킨입니다.

자고로 치킨이라 함은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 먹는 것을 으뜸으로 치는데, 누가 파와 치킨이 어울릴 것이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치킨에 파채는 느끼함을 없애주는 최고의 메뉴가 된 것 같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만 파채가 어울리는 게 아니었던 거지요.

대중적인 맛의 기본 치킨 외에 요즘 젊은층은 트렌드에 맞게 치즈, 허니버터 등 퓨전 세트를 더 선호하

는 것이 추세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치킨업계에서 그래도 나름 매니아층이 형성되어 골목상권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다양한 음식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신 사장님은 무엇보다 “음식이란 자고로 깨끗함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철칙을 가지고 계시니 매일매일 싱싱한 파를 하나하나 깨끗이 다듬고 국내산 닭을 사용하여 질 좋은 기름으로 만들어 낸다고 하십니다.

대학가에 위치한 가게이다 보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강의가 열리고 학생들이 학교를 오지 않으니 매출에 큰 영향이 있어 안타깝지만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대한민국 아닌 전 세계가 어려우니 너무 어렵다어



렵다 말하기보다 그저 묵묵히 이 자리에서 버티며 상황이 좋아지길 바라고 있는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가게를 꾸준히 찾는 단골 손님들이 있어 힘을 내고 있으니 작은 서비스라도 신경 쓰려고 꾸준히 노력하는 중입니다

손님들이 많아서 매출을 많이 올

리는 것도 좋지만 혹여 그로 인해 꾸준히 오시는 단골손님에게 소홀할까봐 많이 조심하십니다.

좋은 사람들과 단짠단짠 치킨에 알싸한 파채를 곁들여 시원한 치맥 한 잔 어떠신가요?

박준환 기자

신규창업음식업소 개업했어요

제공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 달서구지부



누나 찜

대구시 달서구 학산로 198(송현동)
☎ 053-657-2321



원 청담면옥 진천점

대구시 달서구 상화로 79(진천동)
☎ 053-638-0892



진 삼겹살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32길 12, 1층(상인동)
☎ 010-3805-5531

달성문화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는 문화플랫폼’ 비전 선포

달성문화재단(이사장 김문오)은 7월 15일 호텔 아젤리아 1층 대강당에서 창립 10주년을 맞아 비전선포식·세미나를 개최한다.

2011년 7월 15일, 창립한 달성문화재단은 ‘달성 100대 피아노’,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비슬산 참꽃문화제’, ‘문화도시 예비사업’ 등 지역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지역민들의 일상 속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도시 예비사업 ‘달성을 상상하다’, 예술자지구역 ‘달성 생활문화동호회 프로젝트’가 현재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진행 중에 있다.

이번 기념식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 관계자들만 초청해 기념식을 진행한다.

총 2부 순서로 구성해 1부 ‘군민과 함께 키우는 지역문화’이란 비전을 선포할 기념식을 가지며, 2부는 ‘달성군의 지역문화중심 역량강화방안’이란 주제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이승정 회장, 대

구문화예술회관 김형국 관장, 문화도시 4.0 원상용 대표가 발제자로 참여하며, 대구경북연구원 오동욱 연구위원과 영남일보 박진관 편집국 문화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세미나를 진행한다.

특히 달서문화재단 최현묵 상임이사가 좌장을 맡아 세미나를 이끌어간다.

달성군립합창단의 식전공

연을 시작으로 달성문화재단 내 우수직원 표창과 창립 10년을 위해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감사패를 증정하며, 호텔 입구 포토존 운영과 지난 10년의 발자취와 기록을 담은 아카이브 전시공간을 호텔 로비에 마련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자료제공:달성문화재단〉

상주 촌쌀 떡볶이

월배 시장에 오다. ‘뽀끼뽀끼 분식집’

최근 경북 북부지방(상주, 의성, 문경)의 떡볶이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촌쌀 떡볶이’가 월배 시장 뽀끼뽀끼 분식집으로 왔습니다.

대구에서 웬만한 떡볶이는 다 먹어본 제게는 한마디로 어릴 적 엄마가 사준 그 맛이 났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던 그 시절, 떡볶이 사달라고 조르고 졸라 먹었기 때문에 잊을 수 없었던 그 맛 말입니다. 어린 마음에 떡볶이가 아까워 씹지도 삼키지도 않고 떡이 해질 때까지 빨고 빨다가 넘겼던 아련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그 옛날 맛의 비결은 고추장 발효 소스라고 합니다. 떡볶이를 많이 먹으면 속이 탈이 난 것처럼 더부룩한데 이집 떡볶이는 발효된 소스를 사용하여 그런 부작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들어 하나하나 고유의 맛이 강하게 나는 튀김, 그 중에서도 고속도로 휴

게소에나 가야 먹을 수 있는 어포튀김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습니다.

상주에서 성공한 프랜차이즈를 두고 시장 분식으로 온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주로 배달 앱을 통한 젊은층이 모든 메뉴를 선호한답니다. 시장은 직접 맛을 보고 사가는 높은 연령층이 대부분이고 단순 메뉴에 대한 호불호가 확고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경영법을 쓰면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간단한 떡볶이와 튀김을 프랜차이즈와 시장 손님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주문방식과 연령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사장님의 경영과 상권 분석에 대한 내공이 장난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음식장사를 하는 이유가 여러 사

람들과 만나고 손님 한 분 한 분이 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고 떡볶이 맛있더라, 튀김 다시 생각나더라, 이런 이야기 듣는 것이 내 삶의 활력소입니다. 지금까지 그 얘기를 들으려고 장사를 했고 상주에서 성공하고 이제 다시 월배 시장에서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객의 칭찬이 삶의 활력소’라는 말씀이 밤새도록 잊히지 않더라고요. 결국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칭찬받기 위함이거나 나 또한 친구나 동료, 가족에게 칭찬에 인생했던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했습니다.

떡볶이 맛집에서 프랜차이즈와 시장의 판매 전략, 어린 시절 추억, 칭찬에 인생했던 저를 돌아보는 1석 3조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시골에 계신 엄마 아버지께 어릴 적 아들래미가 사달



라고 조르고 졸랐던 추억의 그 떡볶이 한 봉다리 사들고 가야겠습니다.

최윤석 기자

뽀끼뽀끼분식집
월배시장 내 위치 / 010-3822-4522

모범음식업소 추천해요

제공: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달서구지부



성주막창

대구시 달서구 상화로 73(진천동)
☎ 053-635-9268



제형면옥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213(상인동)
☎ 053-639-0076



전원숯불 족전점

대구시 달서구 와룡로 140(감삼동)
☎ 053-525-8592

푸른방송 가입하고! 커피쿠폰 받고!



7월엔, 푸른방송 가입하고 스벅커피 마시자!

7월 한 달 동안 푸른방송 가입 고객 중 매주 5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을 증정해드립니다.
커피 쿠폰의 행운이 가득한 푸른방송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기간 중 가입/설치 완료 또는 재약정 고객에 한해 자동응모되며, 자세한 사항은 푸른방송 홈페이지(www.gcs.co.kr)에서 확인하세요!

푸른방송 결합특가

월 만 원대에 방송과 인터넷 다~ 쓰면서 뽕뽕한 무료 혜택까지!

인터넷 무료
6개월

방송 무료
3개월

TV코인 증정
3만원

캐치온 무료
1개월

월 **16,500원**

결합 / 3년약정 / VAT포함

본 특가상품은 2021.07.01. ~ 08.31.까지 가입 및 설치 완료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www.gcs.co.kr
053-551-2000



Ch.1 프로그램 소개

Channel for you

행복한 달서구 달성군 ▶ 정겨운 우리동네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동아리, 동호회 등의 행사를 제작, 방영하는 프로그램

버스킹 & 시간여행



버스킹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음악과 함께 추억을 선사하는 프로그램

God 일우의 TOEIC 'The LUV'



YBM동성로 대표강사 전일우 선생님의 토린이(토익+어린이)들을 위한 방송과 인터넷 강의를 위해서도 다시한번 토익을 즐겨보자.

지역채널 뉴스 ▶ ch1 푸른방송 NEWS



지역의 생생한 소식을 신속히 전해드립니다.

▶ 방송시간

매일 ⇒ 00:00 / 03:00 / 06:00 / 08:00 / 12:00 / 16:00 / 19:00

종합편성채널 (종편)

▶ TV조선 토요일 밤 9:10



대한민국 최강! 샌 캐릭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진보한 시사는 박수받지만 진부한 시사는 외면 받는다. 서로코드가 맞지않는 강적들이 뿔뿔히 뿔었다. 고품격 저품격 사이의 아슬아슬한 시사쇼!

▶ JTBC 토요일 밤 9:00



인생을 살다보면 마주치게 되는 사소하지만 궁금해 견딜 수 없는 질문들 그럴 땐!!! '질문하라! 아는 형님이 답할 것이다.'

나이도, 출신도, 성격도, 외모도 전혀 다르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추측하고! 실험하고! 전해주는 '아는 형님'만의 인생 해답!

케이블 채널



▶ tvN 금, 토요일 밤 10시 50분

대한민국 최대의 관광지 비모도, 그곳에 숨어든 초청력 살인마를 막을 네 번째 골든타임 공조!

최초 범죄 신고가 들어오는 112신고센터. 3분 도착, 5분 현장 확인, 10분 검거 원칙으로 누군가의 소중한 삶을 지켜온 골든타임팀. 골든타임팀의 전화벨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자신과 같은 청각 능력을 가진 살인마를 쫓아 비모도로 간 강권주와 골든타임팀. 그리고 같은 목표를 쫓아온 LAPD 데릭 조 형사. 하지만,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 누군가를 연상시킨다..?

행락철을 틈타 벌어지는 수 많은 범죄들 그리고 범죄들 사이 교묘히 숨어든 초청력 살인마의 정체!

내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존재를 지킬 방법. 살리는 귀 VS 죽이는 귀, 골든타임을 사수할 초청력 대결이 시작된다!

푸른방송 최신 영화관 (VOD)

▶ 푸른방송 VOD 극장동시 상영작

이웃사촌

백수가장 좌천위기 도청팀장 대권(정우)은 팀원들과 함께 해외에서 입국하자마자 자택 격리된 정치인 가족을 24시간 감시하라는 미션을 받는다. 이웃집으로 위장 이사온 도청팀원들은 수상한 가족들의 모든 소리와 행동을 감시하면서 새로운 비밀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는데...



도굴

흙 맛만 봐도 보물을 찾아내는 타고난 천재 도굴꾼 강동구(이제훈). 자칭 한국의 '인디아나 존스'로 불리는 고분벽화 도굴 전문가 존스 박사(조우진), 전설의 삼짱 달인 삼다리(임원희)를 만나 환상(?)의 팀 플레이를 자랑하며 위험천만하고도 짜릿한 도굴의 판을 키우는데...



시청방법 ▶▶

메뉴 → VOD다시보기 → 영화 → 극장동시상영관

경북 도내 '최강 팀' 으로 우뚝

고령군청 가야돌이 야구단 제19회 경북도지사기 야구대회 준우승 차지

고령군청 가야돌이야구단(회장 이주영, 감독 박현수)은 7월 3~11일까지 포항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19회 경북도지사기 야구대회'에 참가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예선전부터 최고의 실력을 뽐내며 구미 소방서와 경북 교육청을 상대로 압도적인 점수로 승리하여 준결승에 진출했으며, 준결승전에서는 포항 남부경찰서를 맞아 15 대 7로 승리를 거둬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선수 출신이 3명이나 있는 체육 교사 팀들로 구성된 경북 교육청(야통연합)팀을 맞아 선전했으나 5대4로 아쉽게 패했다.

고령군청 가야돌이야구단은 2010년 창단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경북도지사기 야구대회 참가하여 우승 1회, 준우승 3회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어 경북 도내에서 최고의 강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주영 가야돌이 야구단 회장은 “바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2주 동안 휴일도 없이 함께 땀 흘리며 좋은 성적을 내준 팀원 모두에게 감사하다”

며 “운동장에서 보여준 열정을 고령군 발전에도 열정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고령군청〉

덕곡 예마을, 소득·체험분야 '대상' 수상

2021년 경북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지난 7월 '2021년도 경상북도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덕곡 예마을이 소득·체험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는 경상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주민역량강화, 공동체 활동 촉진, 도농 교류 확산 등에 사업성과를 두어 마을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 만들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최되는 마을 경영연대회로 올해로 8회를 맞이했다.

마을만들기사업에는 소득·체험, 경관·환경, 문화·복지 3개 분야와 농촌만들기사업에는 농촌지역개발, 농촌빈집·유희시설활용 2개 분야로 구분되어 진행됐으며, 고령군은 지난해 농촌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부문에서 다산면 행정복합타운으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콘테스트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금년에 대상을 수상한 고령군 덕곡면 예마을은 기존생활공동체를 유지하며 주민 공동체인 영농조합법인을 별도로 구성해 2015년부터 청정야외물놀이장과 유럽형 카라반, 사계절 펜션과 고설 딸기체험 등을 통해 2020년까지 누적방문객 25만 명과 누적매출액 21억 원을 달성한 실적 등으로 심사위원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또한, 예마을의 성공적인 농촌마을 육성과 주민의식 함양을 위해 지속적인 주민자치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물놀이장 개장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농특산물 판매로 인해 소득을 창출하는 등 소득·체험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덕곡 예마을에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격



려금 200만 원이 수여됐으며, 이외에도 경상북도를 대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제8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전국대회’ 출전자격도 획득했다.

향후 전국대회 일정은 7월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8월 대국민 문자투표와 더불어 중앙발표 및 퍼포먼스를 통해 전국 우수마을을 시상할 계획이다.

〈자료제공:고령군청〉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2021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

지역체육 빛낸 장학생 5명, 1,500천 원 장학금 지급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이사장 곽용환 군수)에서는 지난 12일(월) 장학위원회를 개최해 5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총 1,500천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하반기 장학위원회에서는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경연·경기 등 예·체·기능에서 두각을 나타낸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특별 장학금

및 기타장학금을 심의했으며, 그 결과 2021년 경북소년체전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5명에게 1,500천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산초 6학년 기영난 선수는 지난 4월 경북 예천군 예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2021년 경상북도 소년체육대회 육상경기대회에 출전해 100·200m 신기록을 수립했고, 고령초 6

학년 김서현 선수는 유도 57kg급 1위를 기록했다.

특히 태권도 부문에서는 쌍림중에 재학중인 송채근 41kg(핀급), 김동건 49kg(밴텀급), 김현우 77kg(L-헤비급) 선수들이 나란히 1위를 차지했다.

장학위원회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해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했으나 지역 학생들이 2021년 경북소년체전 각종 종

목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해 지역체육을 빛낸 노력을 특별히 격려하고자 하반기 장학위원회를 개최해 장학금을 지급하게 됐다. 장학위원회 노성환 위원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내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장학금 지급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된 장학금은 7월 말에 장학증서와 함께 지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고령군청〉

성주군, 여름에 떠나면 좋을 ‘숨은 관광지’는 어디?

초전면 뒷미지 수변공원, 백련과 홍련의 황홀함에 가슴 설렘

성주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적하고 숨겨져 있어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비대면(언택트) 여행지 3곳과 비교적 인파가 적고 청정한 자연을 즐기며 쉽게 걷기 좋은 길 2곳을 소개한다.

올 여름 가볼만한 숨은 여행지로 연꽃이 아름다운 ▲ 뒷미지 수변공원(초전면 용성리) ▲지산지 옥련생태공원(대가면 옥련리) ▲공장리제(대가면 옥성리)와 자연에서 위로 받으며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용성-칠선간 숲길 ▲가야산생태탐방원(수륜 봉양로1길 313)이다.

초전면 뒷미지 수변공원

초전면에 위치한 뒷미지 수변공원(초전면 용대로 122-11 앞)은 여름철 성주의 명소로 자리 잡아 7월이면 연분홍빛으로 물든 연꽃이 만발하여 보는 이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수변공원으로 조성된 뒷미지는 연못 중앙까지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 못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 백련과 홍련이 함께 어우러진 황홀한 모습이 눈앞에 펼쳐진다. 또한, 야간 분수와 정자 등 부대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처이자 산책로로 인기를 끌고 있다.

매년 연꽃이 만발할 때면 전국에서 모여든 사진작가들로 뒷미지는 숨은 관광지 매력을 한껏 발산하고 있으며, 색색의 연꽃과 초록의 싱그러움이 더해져 바쁜 일상에 쉼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주변에는 전국맛집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별고를 오랜 가계인 초전새불고기식당(초전면 대교로 22)이 있다.

대가면 공장리제 옥련지 생태공원

멀리 떠나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생각지 못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 평소 무심코 지나친 곳도 자세히 보면 훌륭한 여행지다. 가까운 여행지에서도 생각지 않았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뒷미지 연

꽃을 놓쳤다면 한적하고 소소한 연꽃단지인 대가면 옥성리 공장리제(대가면 참별로 2299 맞은편)와 백련이 아름다운 옥련지 생태공원(대가면 옥련 1길 8)이 저수지의 습지를 복원, 다양한 생물체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의 공간과 주민들에게는 생태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근에는 포천계곡, 성주호, 무흘구곡 등 천혜의 자연 관광지가 있어 자동차를 타고 만나절만 콧바람을 쐬고 오면 집콕으로 생긴 우울감이 싹 사라지고 삶의 활기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근의 칼국수와 양배추 김치가 유명한 성남식당(대가면 여실길 26), 나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자랑하는 지역 카페가 여행객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주고 있다.

용성~칠선간 숲길

뒷미지 연꽃공원 주차장(초전면 용대로 122-11 앞)에 차를 세워두고 연꽃공원을 산책한 후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위치 기반 정보서비스인 두루누리에 소개되어 있는 용성~칠선간 숲길을 거닐어보자. 싱그러움 초록이 손짓하며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게 조성된 숲길은 지역민들에게는 아침 운동길로 여행객들에게는 걷기 좋은 길로 많이



뒷미지 수변공원

알려져 있는 산책길이다.(왕복 7.5km)

가야산생태탐방원

가야산은 ‘조선 8경’의 하나이자 ‘한국 12대 명산’ 중 한 곳이기도 하다. 계절에 따라 변화무쌍한 색채를 보여주며, 신묘한 형태의 기암과 절벽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가야산 정상인 칠불봉(해발 1천 433m)과 만물상은 성주군의 보배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가야산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체류형 숙박거점인 가야

산생태탐방원은 아름다운 자연에서 즐기는 편안한 휴식,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생태 그대로의 문화공간으로 청정, 힐링, 웰니스 생태관광지로 전국에서 사랑하고 받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해설사와 가야산을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으로 땅에도 하늘에도 나무 가지에도 생명이 가득하고 작은 식물들과 새들을 찬찬히 관찰하고 감탄하며 걷다 보면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 차오른다.

특히 이곳은 야생이 그대로 살아있는 가야산에움길 코스

가 포함되어 있어 가천면 법전리 마수폭포까지 이어지는 4.4km구간은 무장애나눔길로 가야산을 편하게 즐길 수 있다.(수륜면 봉양로1길 313 ☎ 054-930-7000)

싱그러움 초록이 우리들을 유혹한다. 자연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해 방문하는 누구나 다양한 휴식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모든 이들에게 잠시나마 일상의 걱정과 고민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과 작은 행복을 품고 가는 소중한 여름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

〈자료제공:성주군청〉

성산동 고분군 역사 속으로

2021 ‘고분군역사 군민참여강좌’ 수강생 모집

지난 5월 개관한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에서는 성산동 고분군 발굴사에 관심있는 군민들에게 지식과 흥미를 동시에 제공하고자 ‘2021 고분군역사 군민참여강좌’를 개설한다.

전시관 개관을 맞아 ‘성산동 고분군역사 속으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올해 처음으로 개설되는 이번 강좌는 지난 일제강점기부터 최근까지 이루어진 성산동 고분군 발굴 역사를 주제로 하여 총 3개 강좌를 마련해 진행한다.

제1강좌(8. 18)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고적조사’를 주제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에 의한 성산동 고분군

조사 및 결과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고자 하며, 제2강좌(8. 25)에서는 ‘성주 성산동고분군의 묘제와 출토유물’을 주제로, 고분군 무덤양식과 유물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 제3강좌(9. 1)는 ‘성산동 제22호분 발굴 이야기’로, 지난 2019년에 실시한 성산동 제22호분 발굴조사의 과정과 의의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본 강좌는 성주군에 거주하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8월 18일~9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오후 2~4시) 전시관 1층 다목적 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모집기간은 7월 26일~8월 5일까지(강

좌 당 25명 선착순 마감)이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신청방법은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홈페이지 새소식 코너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hlhp@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성주군은 이번 강좌 개설을 통해 성산동 고분군에 대해 더 많은 군민들의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고분군 전시관이 단순 전시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교육·체험과 문화휴식 공간으로서, 앞으로 전시관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성주군청〉

기쁨 Plus
SBS Plus



다 함께 fun!
SBS funE



함께 만드는 스포츠 세상
SBS Sports



골프의 모든 순간
SBS Golf

의견있는 경제채널
SBS CNBC



Music & More
SBS MTV

Kids First
nickelodeon



 **SBS Medianet**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와 감동**
SBS 미디어넷과 함께 만드는 기쁨은 언제나 'On-Air'입니다.

 **SBS Plus**

 **SBS Sports**

 **SBS Golf**

 **SBS funE**

 **SBS CNBC**

 **SBS MTV**

 **nickelodeon**

지역사랑 파트너

‘나’ 보다 ‘우리’가 강하다. 서로 도우며 힘들수록 함께해요!

음식관련

장기 · 회원

죽독 농아버섯백숙
"바지중의 재왕~일품농아버섯"

- 농아버섯오리백숙 ₩55,000
- 농아버섯닭백숙 ₩50,000
- 농아버섯곰탕 ₩50,000
- 해신탕 ₩110,000
- 농아삼계탕 ₩12,000

T.635-3434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235 화원삼거리 역지타운 내

기타(타구)지역

카페두다스에서
진짜 커피를 만나다

음향까지 최고! 음향 장비까지
카페 두다트 팔공산점

대구시 파계로 596 053.981.1359

리빙

도배 · 장판 시공전문

안광인테리어
010-3099-1684
달서구 본동 970

대실가마솥보양탕

- 염소불고기
- 상황버섯삼계탕
- 보신탕 ● 염소탕

T. 053-588-0077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3길 13-1

인터넷 쇼핑몰 "레드밤"

저렴한 가격, 정직한 마음으로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070-8911-7711

달성군 화원읍 인흥길 63 1층

푸른신문은 독자가 만드는 신문입니다.
푸른신문은 모두에게 열린 신문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
우리 지역 달서구 · 달성군의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이 기자가 되어
사람 사는 이야기, 우리 사는 이야기를 신문에 실어 보시
기 바랍니다.

나의 이야기도 좋고 주변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원고를 써서 보내주셔도 좋고 제보만 해 주셔도 환영합니
다.

살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
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

편집국 (053) 572-6000 / E-mail: pr5726000@naver.com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323길 13 3층 (우편번호 42640)

▶보내는 방법

- 형식은 제한 없으나 원고를 써서 보내실 경우 1,000자 내외
를 기본으로 합니다.
- 관련 사진 있으면 함께 보내주시고, 연락 전화번호 남겨주시
기 바랍니다.
- 신문에 게재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기타

Q 24시
타이, 아로마 마사지

T.(053)636-5238
달서구 상인서로 20 (4층)
(구. 상인나이트 건너편)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

945-2302
대구시 동구 봉무동 1545

중고물품 판매합니다.

전집(전래, 명작 등), 인형, 장난감
다수 보유. 가격조절 / 직접방문!

문의: 010-3424-8523

청소년과 부모님을 위한
재미있고 신나는 #진로코칭북

두근두근,
꿈과 마주하기

상담코칭센터 인투커리어 070-4306-1201

MODERN
DESIGN &
COZY
COMFORT

스카일라휘할 인테리어의 역작함

공간과 사람들 건축/인테리어전문 010.2902.3097

산골장어 · 아나고 전문점

053. 586. 9988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1599-1

新 기장아라고

새우아라고!
새우아라고!

우리 동네 구성구석, 크고 작은 소식들이 살아 있는 곳!

지역민을 위한 푸른방송 ch1

우리 동네 푸른방송 CS 푸른방송
재보 및 가입 A/S 551-2000

자연속의 디지털 자동차극장

씨네80

상영시간

- 1회 20:00
- 2회 22:30
- 3회 24:45 (금·토)

상영시간표 당일 재확인 필수

블랙 위도우

그녀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www.cine80.co.kr
문의 : 984-8008

제19회 대구자원봉사대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8월 20일(금)까지 대구자원봉사대상 후보자 추천·접수

대구시는 헌신적인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시민에게 귀감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공동체 구현에 앞장서 온 자원봉사자를 발굴·격려하고자 ‘제19회 대구자원봉사대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후보자는 공고일(’21. 7. 8.) 현재 대구시에 계속해 3년 이상 거주하고 5년 이상 자원봉사 활동 중인 사람으로서 남다른 이웃사랑 실천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공헌한 시민이다.

추천기간은 8월 20일까지며, 구청장·군수, 시 및 구·군 자원봉사센터장, 시민(19세 이상 시민 50명 이상 연명)이 추천할 수 있으며 거주지 구·군(자원봉사 담당부서)과 대구시(자치행정과)에 접수하면 된다.

구비 서류인 추천서, 공적조서 및 공적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대구시 자치행정과(☎803-3041), 구·군 자원봉사 담당부서, 시 및 구·군 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접수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적 확인을 위한 현지 조사와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명과 분상 2명을 선정하며, 수상자는 2021년 12월에 개최하는 ‘제24회 대구자원봉사자대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영예의 수상자에게는 대구시 주관 대단위 행사 초청, 시 홈페이지 ‘우리 지역을 빛낸

사람들’에 수상자 공적 게재 등 각종 예우를 받게 된다.

차혁관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2020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대구시 자원봉사 사업이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지역 자원봉사자 분들이 헌신한 결과”라며, “다양한 영역에서 묵묵히 봉사활동을 해오신 분들의 공로를 발굴하고 포상해서 자원봉사자를 예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원봉사 활성화와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대구자원봉사대상’은 지역의 자원봉사활동가 모두가 선망하는 영예로운 상으로 올해 19해째를 맞고 있으며 지금까지 개인 54명과 8개 단체가 수상했다.

문의) 달서구청 행복나눔과 667-3661, 달서구자원봉사센터 636-1365, 달성군청 희망지원과 668-3742, 달성군자원봉사센터 631-4092

〈자료제공:대구시청〉



대구지역 스타기업지정서 수여식 개최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이하 ‘대구TP’)는 지난 8일 오후 호텔인터불고에서 2021년 대구 지역 스타기업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선정 기업 대표이사가 참석한 수여식에서, 신규 대구스타기업 15개사 대표와 기업 전담 PM에 지정서와 위촉장을 수여하고,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이룩한 기업 성장 노고를 격려했다.

대구시의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2007년부터 도입한 맞춤형 기업 스케일-업 정책으로, 대구시가 기업별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 ‘PM’을 기업 주치의로 지정해 각종 지원을 안내·연결해 주고 연구개발과 마케팅 등 운영을 도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선정된 스타기업을 산업분야별로 살펴보면, AI(인공지능), 모바일게임 등 ICT 융합 분야에 5개사가 선정됐고, 반도체 장비 및 무인자동화 장비 등 지능형기계 분야에 5개사, 그리고 소재 및 기능성 섬유 분야와 전기·전자 및 식품 분야에 각각 3개사와 2개사가 선정됐다.

선정된 스타기업들에게 주어지는 지원들을 살펴보면,



전담 PM 매칭을 시작으로, 성장 계획 컨설팅, R&D 기획 지원, 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과, 평가를 통해 연간 2억(최대 2년) 원 내외의 지역 스타기업 전용 R&D 과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에 흥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도 “대구 지역 스타기업들이 각 분야별 선도 기업이 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업 지원을 하

겠다”고 말해, 향후 스케일-업 하는 지역기업들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1년 기준 대구 지역 스타기업에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스케일-업(Scale-up)한 지역기업은 9개사로 전국 최다 배출 성과를 이루어, 대구시와 대구 TP의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기업 육성정책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다.

전재경 기자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시기별·사안별)

Q.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지역구 외의 장소에서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거나, 지역구 외의 지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자동동보통신 문자메시지로 의정활동 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지역구 지방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정보고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방식으로 전송하거나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입후보예정 선거구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동동보통신방식으로 의정보고 문자를 발송하거나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알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Q.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에 후원금 기부가 가능한지?

⇒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으로 「정치자금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를 준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59조(조세의 감면)제항 단서에 따라 후원회 또는 소속 정당 등으로부터 기부받거나 지원받은 정치자금을 후원회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는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053-625-1390

달성군 치매안심센터 유가읍 작은도서관 ‘치매극복 선도도서관’ 지정

달성군 보건소는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지난 2일 유가읍 작은도서관을 치매극복선도 도서관으로 지정했다.

달성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유가읍 작은도서관을 치매극복 선도도서관으로 지정해 다양한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치매극복 선도도서관은 지

역 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공공도서관을 통해 치매정보를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치매안심센터와 공공도서관이 함께 협력하는 사업이다.

달성군은 유가읍 작은도서관을 치매극복선도 도서관으로 지정해 관련 종사자들의 치매 파트너 교육을 지원하

고, 도서관 내 치매극복도서 코너를 설치해 치매정보 도서 100권을 비치했다.

또한, 유가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 위치한 유가읍 작은도서관 내에 치매 관련 간행물, 홍보물을 비치해 지역주민이 치매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코너를 마련했다.

박신영 기자

블록체인 인증 활용 ‘내지도 만들기’ 서비스

나만의 맛집 지도, 문화생활 지도 등 유니크(UNIQUE)한 지도 제작·관리

대구는 블록체인 기반 신원확인 앱(App)인 ‘대구ID’ 본인 인증을 통해 개인별 지도를 제작·관리할 수 있는 ‘내지도 만들기’ 서비스를 대구지도포털(<http://www.gis.go.kr/main.do>)에서 7월 12일(월)부터 제공 중이다.

대구에서 ‘내지도 만들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나만의 맛집 지도, 관광지도, 문화생활 지도 등 일상생활의 유익한 정보와 2차원지도(바로e맵, 항공사진)를 결합한 개인용 생활지도를 만들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시설물 위치도, 거래처 현황지도 등 업무와 연관된 정보와 지도를 결합한 영업용 지도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신원확인 앱(App)인 ‘대구ID’를 적용해 본인 인증을 함으로써 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

‘대구ID’ 앱()을 설치한 후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한다.

‘내지도 만들기’ 서비스는 주소, 경·위도, 동명 등의 위치정보를 포함한 MS오피스 엑셀파일(*.xlsx)을 활용해 2차원지도 기반 특정 위치에 점(아이콘), 면 표출 형태로 지도를 제작하고 정보 갱신도 할 수 있도록 구현돼 있어 이용 가이드를 보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대구가 운영하는 대구지도포털은 시민이 편리하게 공간정보 기반의 관광, 도시, 행정 등의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구축한 시스템으로써 전기차 충전소, CCTV, 공공도서관 등 80여 종의 다양한 분야별 지도정보를 이용해 볼 수 있다.

또한, 국토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온라인으로 연계돼 있어 토지·건물 정보, 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실거래가 등 부동산 실시간 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특정 지역 주변검색 기능을 통해

관공서, 편의시설, 의료기관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대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유익한 권역별 여행지 목록, 골목 투어 코스, 맛집 거리 등의 관광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도별 항공사진 영상으로 대구의 변천사도 비교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올해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교육기관, 교통안전 시설물 등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어린이 지도’를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데 노력할 예정이다.

대구는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 개선사항 의견을 보완하고 기능 및 시각적인 부분을 고도화하여 활용도 높은 공간정보 서비스를 더 많은 시민에게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대구시청〉

남부교육지원청 ‘숲체험 생태환경교육’

대구남부교육지원청은 7월 대구수목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숲의 가치를 일깨우고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깨닫는 ‘숲체험 생태환경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대구수목원 맨발로에서 유치원 학부모 10여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숲체험 자연놀이, 상호 존중 대화법, 맨발걷기 등을 체험하면서 생태교육의 중요성을 익히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을 이해하는 체득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박지영 장기동 주민은 “저희 아이도 맨발걷기를 좋아해서 제가 오늘 참여하게 되었는데 요, 여기 오늘 비도 오고 걷기도 딱 좋은 날씨네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저와 함께

같이 걸어봐요”라고 말했다.

대구남부교육지원청 소상호 교육장은 “코로나19 가족간의 야외활동이 잦아짐에 따라 학부모님들께서 몸소 자연생태를 체험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숲의 가치와 자연생태에 대한 생명존중의 태도를 지

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부교육지원청의 ‘숲체험 생태환경교육’은 대구수목원 및 앞산 자락길 일원에서 9월 17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교육신청은 대구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이통승 기자



대구도시철도, 전 역사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 달 30일 전동보장구 사용자들의 도시철도 이용 편의를 위해 전 역사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 사업으로 접근성이 좋은 도시철도 역사에 충전기가 설치돼 전동보장구 이용객이 편리하게 충전해 이동할

수 있어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급속충전기는 역사 운영시간인 오전 5시 30분~24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전 역사 조성’은 지난해

9월 시민들이 제안하고 평가·결정하는 대구시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선정돼 공사에서 올해 추진하게 됐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환 사장은 “앞으로도 교통약자 복지 서비스를 위해 관련 편의시설을 꾸준히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
우리 지역 달서구·달성군의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모든 지면 광고 50% 할인해드립니다.

문의 : 053)572-6000

대구시 '2021년 치매 극복 수기 공모전'

치매와 관련된 경험과 감동 이야기로 희망메세지 전달

대구시(대구광역시치매센터)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와 관련된 경험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자 '2021 치매극복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9회째 개최되는 치매 극복수기 공모전은 '치매에 관한 경험과 감동이야기'를 주제로 ▲치매 가족의 경험담 ▲치매환자 돌봄 과정에서 느낀 점 ▲치매 관련 자원봉사 경험 등의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7월 12일(월)~8월 27일(금)까지이며, 치매환자 및 가족, 시설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등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A4 4페이지 내외(글씨크기 12pt)로 작성해 대구광역시치매센터로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참여 방법은 대구광역시치매센터 홈페이지(daegu.nid.or.kr)를 참고하면 된다.

접수작은 심사를 거쳐 4편

을 선정해 ▲최우수 1편(상금 50만 원), ▲우수 1편(상금 30만 원), ▲장려 2편(상금 각 20만 원)을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대구광역시치매센터 소식지(진골목)와 대구광역시치매센터 누리집,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게시해 시민들에게 사연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대영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치매 극복에 대한 감동 이야기를 통해 같은 아픔을 겪으시는 분들의 상처를 보듬



2019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치매가 있어도 안심할 수 있는 대구를 만

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대구형 배달 앱 '대구로' 홍보방안 모색 위한 간담회

대구시는 대구형 배달 앱(이하 '대구로') 출시를 앞두고 MZ세대 20여 명을 초청해 온라인 홍보방안을 모색했다.

대형 배달 앱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구시와 인성데이터가 개발해온 '대구로' 배달 앱이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의 음식점은 3만 8,000여 곳으로, 이중 1만여 곳 이상이 배달 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정 배달 앱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여기에 평균 6% 이상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는 음식주문 수수료 2%, 카드 결제수수료 2.2% 등 기존 대형 배달 앱과 비교해 6% 이상 수수료를 낮추고, 대구행복페이 온라인 결제와 첫 주문 쿠폰, 마일리지 제도와 같은 장점을 내세운 '대구로' 배달 앱의 홍보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또 최근 배달 앱과 SNS 상에서 '돈쥌', '미닝아웃'과 같은 새로운 신조어와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MZ 세대를 겨냥한 전략적인 홍보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대표 SNS 채널 운영자를 비롯해, 광고·마케팅 업체 관계자, 지역 유명 블로거와 유튜버, 그리고 지역 대학생 등 20여 명을 초청해, 소비층들이 바



라는 배달 앱 기능과 이벤트, 그리고 배달 서비스 개선방안과 차별화된 온라인 홍보를 위한 전략 등 다양한 내용과 의견들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 반영·보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시대의 유

행을 선도하는 MZ세대의 참신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홍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성데이터는 원활한 배달 서비스 제공과 지역 배달대행사와의 상생을 위해 모

대상으로 오픈 API를 제공해 '대구로'와 '배달대행 플랫폼' 간 자유로운 연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푸드바이크', '바로그', '배달요', '생각대로' 등 4개 업체와 연동 작업 진행 하고 있으며, 희망 업체 신청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전재경 기자

inet-TV Group

TV Co., Ltd

Life Co., Ltd

Box Co., Ltd

Goldenlife Co., Ltd

Books Co., Ltd

GMCM Co., Ltd

Production Co., Ltd

Promotion Co., Ltd

CruiseON Co., Ltd

inet

inet-TV는 푸른방송과 함께합니다.

국민형 63-1 디지털 III

대구 관광지 여행정보 호텔 내 '키오스크'로 한눈에

지역 관광호텔(14개소) 내 대구 주요 관광지 홍보 키오스크 설치

대구시와 대구관광재단은 지역 내 14개 호텔에 키오스크 설치를 통해 대구 주요 21개 관광지 실감형 여행 체험과 홍보영상, 날씨, 교통 등의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관광 키오스크의 도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언택트 여행이 일상화가 된 흐름과 더불어 대구를 방문한 외지인이 지역의 주요 관광지 정보를 호텔 직원들로부터 많이 획득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진행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 관광분야 기업(호텔)과 협력해 대구·경북의 3대 문화(신라·가야·유교문화) 자원과 대구·경북의 근간이 되는 백두대간과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생태자원의 홍보 확산을 위해 추진했으며, 키오스크 메인화면에서 호텔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대구를 방문한 외지인들에게 '스마트 관광도시, 대구'의 이미지도 함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의 주요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서문야시장, 동성로 스파크, 아양기차길, 앞산전망대, 앞산카페거리, 안지랑곰장골목, 칠성야시장, 수성못, 이월드&83타워, 대명유수지(달성습지), 강

정고령보(디아크), 네이처파크, 육신사 그리고 3대 문화권 주요 관광지인 팔공산(케이블카), 동화사, 웃골마을, 달성토성, 구암서원(미디어파사드), 사문진나루터, 도동서원, 하목정 등 지역 대표 관광지의 생생한 모습을 360도 실감형 VR 사진 이미지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유튜브에 게시된 다양한 대구 관광 홍보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자칫 무료해질 수 있는 호텔 로비에서의 대기 시간도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다.

그 외에도 키오스크를 통해 여행객들을 위해 날씨 및 미세먼지 예보 등 여행 관련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며, 향후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호텔 부근 실시간 교통상황 정보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대구시 관광협회의 협조를 받아 노보텔엠베서더대구, 노블스테이, 대구그랜드호텔, 리버턴호텔, 아마레호텔, 인터불고엑스코, 칸호텔, 퀸벡호텔, 토요코인 대구동성로, 호텔라운제나, 호텔수성, 호텔아젤리아, 호텔G, JB관광호텔 등 14개 호텔에 설치돼 현재 운영 중이다.

호텔 관계자는 "키오스크를 배치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호텔 고객들로부터 '대구의



노블스테이

관광지를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고 키오스크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활용해 숙소 인근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어 좋았다'는 평이 나오고 있어 호텔 입장에서 앞으로 제2의 호텔 안내원으로서의 키오스크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대구·광주 '달빛동맹 발전' 위한 협약식

대구시와 광주시는 달빛고속철도의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환영하고, 달빛동맹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6일 광주역에서 협약식을 개최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지난 20여 년간 공동 숙원사업이던 달빛고속철도를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두 도시는 영호남의 공동번

영과 화합을 위해 2013년 3월 '달빛동맹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대구 2·28 민주운동 기념식'과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상호 교차 참석해 오는 등 현재까지 우정을 돈독히 해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병상과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달빛고속철도 건설 사업과 같은

SOC 사업 및 경제 산업 분야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 추진해 왔다.

이번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달빛고속철도사업을 반영시키고자 대구시장과 광주시장은 물론, 두 지역 국회의원들과 달빛고속철도가 통과하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그리고 전라남도과 전라북도 등 6개 시도지사가 함께 공동호소문과 공동건의문을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전달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이뤄낸 쾌거라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대구시와 광주시는 달빛동맹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고, 달빛고속철도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 추진 위원회' 구성과 2038년 대구-광주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위원회 발족, 그리고 달빛동맹의 교류 범위 확대를 위한 달빛동맹 발전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와 광주 간에 더욱 견고해진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앞당기고, 2038년 대구-광주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또한 실현시켜 영호남의 상생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달빛동맹은 지역감정을 벗어나 이 땅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고, 국민 통합과 국가 균형발전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우리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전재경 기자



내 고향 문화유적 탐방



송은석 (대구시문화관광해설사)
e-mail: 3169179@hanmail.net

176. 마천고개 열부 창녕성씨 정려각

1) 프롤로그

이번에도 우리 고향에 있는 한 정려각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다사읍 이천리와 하빈면 현내리를 잇는 마천고개[마천령]. 이천삼거리에서 현내리 방향으로 마천고개를 550m쯤 가다보면 우측에 정려각 한 동이 있다. 이 길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도 이곳에 정려각이 있는지 잘 모른다. 주변이 대나무 숲으로 우거져 있고 정려각 담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그렇다. 게다가 왕복 2차선의 좁은 고갯길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눈에 띄기도 힘들고, 설령 눈에 띄었다 해도 차를 세우고 살펴보기도 쉽지 않다. 도보로 이 고개를 넘는 사람도 거의 없다. 이번 이야기는 마천고개에 있는 열부 창녕성씨 정려각에 대한 이야기다.

2) 기막힌 열부 스토리들

열부·열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특히 현장에서 답사객을 대상으로 해설을 할 때 더욱 고민스럽다. ‘과연 이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까?’ 열부·열녀란 절개가 곧은 여인을 말하며, 절개란 신념·신의 따위를 굽히지 않고 지키는 굳건한 마음이나 태도를 말한다. 그런데 전통사회에서 여인들에 적용되는 절개의 의미는 좀 달랐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부종사(一夫從事)’였다. 평생 한 남자만을 섬기는 것이 전통시대 여인들에게 적용되는 절개의 시작이자 끝이었던 것이다. 남편이 일찍 죽어도 개가하지 않고 평생 수절하며 청상과부로 사는 것을 미덕이라 여겼으며, 심지어 남편이 죽으면 따라서 같이 죽는 것을 최고의 절개라 권장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열부·열녀이며, 열부·열녀를 권장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열부·열녀비와 정려각이다.

열부·열녀 스토리는 효자 스토리처럼 정형화된 몇 가지 텍스트가 있다. 모든 텍스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내용은 ‘먼저 죽은 남편을 따라 자진한다’는 것이다. 몇 가지 대표 텍스트를 살펴보면 이렇다.

- 남편이 죽자 남편의 장사를 지낸 후, 혹은 남편의 3년상을 지낸 후, 스스로 자진했다.
- 자식 없이 남편이 일찍 죽자 남편의 상례를 다 치루고 양자를 들여대를 이은 뒤, 남편을 따라 자진했다.
- 임신 중에 남편이 죽자 뱃속에 있는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산 후 남편을 따라 죽었다.

이외에도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열부·열녀 사례가 많이 있다. 한 예를 들면 우리 고향에는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남편을 지키기 위해 대신 칼에 맞아 죽은 열부를 기리는 정려각도 있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각이 아닌 당시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안목도 필요하다. 지금도

종종 연로하신 할머니들을 만나 대화를 해보면, 일부이긴 하나 일부종사·열부·열녀를 미덕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다. 지금도 이렇한데 200~300년 전 조선시대에는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3) 18세 꽃다운 나이로

열부창녕성씨정려각의 주인공은 박지운의 처 창녕성씨 부인이다. 대부분 조선시대 여인들이 그러했듯 그녀 역시 자신의 이름이 아닌 ‘박지운의 처’, 또는 성씨 본관을 따라 ‘창녕성씨부인’으로 불린다. 그녀는 어떤 열부행을 보여 이렇듯 열부정려각이 세워진 것일까? 1936년 옥산인 장상학이 쓴 ‘열부하산성씨정려기’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다.[하산은 창녕의 별칭이다]

창녕성씨 부인은 고려 충신인 정절공 성사제의 후손인 성구홍의 딸이다. 1791년(정조 15) 12월 20일 18세의 나이로 밀양박씨 매현 박번의 사손(配孫) 박지운과 혼례를 올렸다. 하지만 이듬해 1792년(정조 16) 4월 16일 우귀(于歸)도 하기 전에 불행히도 남편 박지운이 죽었다. 그녀는 달려가 문상한 후 눈을 감고 입을 다문 채 일체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눈을 뜨고 음식 먹기를 청하니 “남편이 죽었으니 누구를 위해 입을 열고 눈을 뜨겠습니까?”라며 한번 입과 눈을 열고는 11일 만에 죽고 말았다. 2년 후인 1794년(정조 18) 안찰사가 이 사실을 듣고 조정에 알려 조정으로부터 열부 정려가 내려졌다.

지금의 정려각은 1794년 정려가 내려지고 141년 후인 1935년에 건립된 것이다. 콘크리트 담장에 둘러싸인 정려각은 정면·측면 각 1칸 규모로 흙치마 맞배지붕 양식이다. 건물 전체에 단청이 칠해져 있고 정면은 홍살벽, 나머지 3면은 흙벽이다. 정려각 내부에는 정조 갑인년(1794년) 특명으로 정려를 내렸다는 사실이 기록된 정려편액[열부학생박지운처창녕성씨지려], 장상학이 지은 정려기문, 최근에 세운 정려비[열부창녕성씨정려비] 등이 있다. (위치: 달성군 다사면 이천리 619-1)

4) 성종 때가 아니고 정조 때 내려진 정려

열부창녕성씨정려각 앞에 세워진 안내판 내용 중에 오류 하나가 눈에 띈다. “성종 25년(1494)에 명하여 정려를 내렸다”는 표현이다. 내용대로라면 이 정려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527년 전 성종 임금으로부터 받은 정려가 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정려는 시기적으로 볼 때 대구에 산재한 정려 중 오래되기로는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정려가 된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정려편액을 보면 ‘정종 갑인 건륭 특명정려, 을해 3월28일 건각’이라 되어 있다. ‘정종 갑인’은 ‘정조 갑인년’으로 서기로 1794년이다. 또 장상학이 찬한 정려기문에도 갑인년(1794)에 정려를 받고 141년[기록에는 142년으로 되어 있다] 후 을해년(1935)에 정려각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기문에



대나무 숲 사이 콘크리트 담을 두르고 있는 정려각



홍살 너머로 열부창녕성씨정려비가 보인다

나타나는 갑인년과 을해년이 어느 때 갑인년과 을해년인지는 기문에 나타나는 박지운과 창녕성씨 결혼일인 ‘정묘(正廟·정조임금) 신해 12월 20일 [1791년 12월 20일]’로 확인이 가능하다.

5) 에필로그

열부창녕성씨정려각 안내판에 이런 내용이 있다. “...성씨가 나이 18세에 폐백을 받고 시집오기 전에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와서 슬피 울고는...” 정려기문에는 이 부분을 “박지운과 초례를 올리고 남편이 처가에 두 번째 방문하는 재행(再行)을 한 뒤, 신부가 우귀(于歸)를 하기 전에 불행히도 남편이 죽었다”고 되어 있다. 이 부분은 이해를 잘 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 혼례문화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조선전기에는 주로 ‘장가를 갔다’. 남성이 처가살이를 한 것이다. 후기로 오면서는 ‘시집을 갔다’. 여성이 시댁으로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혼례를 올리고 곧장 시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한 동안 시댁이 아닌 친정에 머물다가 시댁으로 들어갔다. 이를 신행·우귀·우례라고 하는데 달을 넘기는 수도 있고, 해를 넘기는 수도 있었다. 바로 이 시기에 남편이 죽으면 참 난감한데, 이런 처지에 놓인 여인을 미성부(未成婦)라 한다. 다음에는 우리 고향에 남아 있는 한 미성부 묘소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아침 출근이 즐거운 직업 선택

아침 출근이 즐거운 직업 선택



구용희 건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예전에는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대부분 선생님, 과학자, 의사 등이 많았다. 요즘은 연예인도 제법 선택되고 있고 부모의 직업에 따라 동일한 장래 희망을 대답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한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대답이 나오는 것은 학생들이 접한 직업이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직업들이 많이 있으며 앞으로도 직업들은 계속 새로 생길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직업의 수가 많은데 미국은 약 3만개, 일본은 약 2만 5천개, 캐나다는 약 2만개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과연 몇 개 정도의 직업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약 1만개 정도의 직업이 있다고 한다. 앞으로 그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지금 여러 직업이 있다고 하지만 요즘 현실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구하기란 정말 쉽지 않다. 우리가 꿈꾸는 직장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과 같은 세계적 기업의 좋은 근무환경에서 연예인과 같은 멋진 동료와 함께 높은 급여를 받으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일 것이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취직하는데 있어 비관적인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현재의 취업실태를 반영한 신조어들도 많이 듣게 된다.

알부자족 : 아르바이트로 부족한 학자금을 충족하는 대학생

이구백 : 이십대의 구십퍼센트가 백수

이태백 : 이십대의 태반이 백수

캥거루족 : 독립할 나이가 지났음에도 부모의 경제력에 기대 사는 젊은이

삼포세대 : 경제적 이유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청년층

십장생 : 십대들도 장차 백수를 생각해야 함

공시족 : 공무원 시험을 장기간 준비하는 이들

청년실신 : 청년 대부분이 졸업후 실업자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현실

동지족 : 취업이 어려워 졸업을 늦추는 대학생

낙바생 :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듯 취업에 성공한 대학생

또,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해서 직장을 구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직장이 정년을 보장하지 않아 '사오정' (45세 정년), '오륙도' (56세까지 일하면 도둑놈)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이다.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직장인의 체감정년은 48.2세이고 직원 중 50대 비율이 9% 정도라고 하며,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현재 20대인 사람은 앞으로 평균 9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한다. 50대에 퇴직을 한다면 수명이 늘어난 만큼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살아가느냐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아침 출근이 즐거운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특기에 맞는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 다.

대구시, 7월 15일(목)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23시까지 운영
사적모임 9인 이상 금지

대구시는 종괄방역대책단 회의와 코로나19 극복 범시민 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수도권 및 인근 광역시의 엄중한 방역상황과 변이바이러스 유행 상황 등을 논의했으며, 7월 15일(목)~25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강화된 2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는 12일(월) 감염병 전문가들과 종괄방역대책단 회의를 했고, 13일(화) 오전 10시 대구시장 주재로 제30차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해 타· 시도 및 지역의 방역상황, 최근 집단 감염의 위험도 분석 그리고 변이바이러스,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기로 했다.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되고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백신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모임·행사·집회뿐 아니라 사적모

임 인원수에 산정하기로 했다.

시설별 조정 내용으로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펍게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은 최근 집단감염 추세 등을 고려해 2단계 기준인 24시보다 강화해 23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되며, 식당·카페의 경우 운영시간 이후 23시에서 익일 05시까지 배달·포장만 가능하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당 1명으로 최대 100인까지 참석이 가능하고, 종교시설의 경우는 30% 이내로 수용인원이 제한되며,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대구시는 최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유흥주점 및 주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핀셋방역을 실시해 방역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첫째, 시와 구·군,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통해 '경고 조치'가 아닌 '운영중단 10일'이 적용되는 원 스트



7월 13일 브리핑

라이크 아웃제를 적극 실시하며, 유흥협회, 외식업협회 등 관련 민간단체를 통한 자율점검을 더욱 강화한다.

둘째,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발생시설과 같은 행정동 내 일반음식점 종사자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시행해,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 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며, 유흥접객원의 PCR 검사주기를 2주 단위에서 1주 단위로 강화 실시해 확진자 발생 시 노출기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셋째, 본격적인 무더위로 인

국민연금 Q&A

Q. 국민연금 미납하면 4대 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미납과 회사취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취업을 위한 서류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입증명서에 이전 사업장의 이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도 미납내역은 표기되지는 않습니다. 혹시 기업에서 채용 시 정책적으로 국민연금 미납을 개인의 신용평가로 활용하는 곳이 있어 납부증명서를 활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에서는 새로 취업한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이전 사업장 미납내역을 통지하지 않으며, 사용자도 근로자의 해당 사업장 내역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 사업장의 납부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65

한 다중이용시설의 에어컨 가동률 증가에 따른 환기 소홀이 우려됨에 따라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환기방역 수칙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예정이다.

그리고 변이바이러스에 대해 의심사례 시 변이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노출동선 검사 및 격리자 범위를 확대하

며, 변이 신속 확정검사에 검사의뢰 대상자를 동거가족과 1차 밀접접촉자까지 확대 시행한다.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입소자와 면회자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대면면회가 가능하도록 해 고위험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차단하기로 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jtbc2



재 미 를 담 다

jtbc2 채널번호

푸른방송 8VSB 36-1, 디지털 44번 | IPTV KT olleh 39번, SK Btv 48번, LG U+ 40번 | SkyLife 45번

선율과 라임을 타고 흐르는 ‘열정 대잔치’

신월초, 인성 뮤지컬 & 연극제 통해 또 다른 자아 찾다

신월초등학교(교장 김희자, 이하 신월초)는 지난 7일(수)에 학생들의 창의성을 계발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가지기 위해 ‘신월 인성 뮤지컬&연극제’를 실시했다.

다양성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 빛을 내는 개개인으로 살아가려면 자신의 생각에 대한 명확한 표현과 개성의 발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이에 신월초는 학생들이 가진 고유한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며 학생 성장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자기표현의 기회를 가지고, 학습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창의성과 소질을 계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인성 뮤지컬&연극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유롭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본인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발화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시간을 가졌다.

3~6학년 연극 및 뮤지컬 동아리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연극제는 학교의 특성 및 교육과정 활동이 잘 묻어날 수 있게 연극 및 뮤지컬 프로그램을 편성했고 해당 학반 학생 전원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총 7개의 동아리에서 준비한 ‘토끼의 재판(3학년)’, ‘홍부와 놀부(4학년)’, ‘어른이

되면(5학년)’의 3가지 연극 및 ‘애니(3학년)’, ‘마틸다(4학년)’, ‘This is me(5학년)’, ‘헤어스프레이(6학년)’ 4가지 뮤지컬이 무대에 올랐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안전예방차원 및 내실 있는 진행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해 해당 학년 내에서 교육활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각 학년별로 2개의 학급이 해당 학년의 공연 시에 강당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공연을 직접 관람하고, 나머지 학급의 학생들은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되는 영상을 교실에서 시청했다.

학년성에 부합하는 내용과 프로그램으로 짜여진 연극과 뮤지컬 무대였기에 각 동아리의 연기를 마치고 무대 인사가 끝날 때마다 많은 박수 갈채를 받는 등 좋은 호응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이번 연극제의 하이라이트는 뮤지컬 ‘헤어스프레이’에서 주인공 트레이시와 친구들이 부르는 ‘You can’t stop the beat’ 넘버였다. 6학년 학생들의 이 노래와 춤은 관객들의 어깨도 함께 들썩이게 한 멋진 프로그램이었다. 결점 많은 십대소녀인 주인공 트레이시가 모든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고,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룬다는 스토리 역시 학생들에게 많은 위안과

희망을 주었다.

6학년 안유강 학생은 “반 친구들과 다 함께 뮤지컬을 준비하면서 친구들과 마음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참 좋았다. 한 교실에서 생활은 했지만 이야기 몇 마디 나눠보지 못했던 친구들과 이번 뮤지컬&연극제를 통해 더욱 깊이 알게 되고 친해지게 되었다. 또한 처음으로 강당 무대에서 관중들 앞에 서 보게 되었는데 떨리긴 하였지만

참 기분 좋은 경험이었다. 표정과 대사를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통해 내가 가진 또 다른 가능성도 찾게 된 것 같아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했다.

신월초 김희자 교장은 “이번 인성 뮤지컬과 연극제가 신월 친구들로 하여금 협력적인 집단 지성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자료제공:신월초등학교>

무더운 여름, 내가 직접 만든 캘리그래피 부채로 더위야 가라!

중앙도서관, 7월 오프라인 사람책 열람행사 실시

대구중앙도서관(관장 장철수)은 ‘무더위야 가라! 캘리그래피 부채 만들기(김미영 사람책)’를 주제로 여름을 맞이해 캘리그래피로 꾸민 나만의 부채를 만들어 보는 7월 오프라인 사람책 열람행사를 7월 24일(토) 오후 2시부터 진석타워 704호에서 운영한다.

‘무더위야 가라! 캘리그래피 부채 만들기’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자녀

와 부모가 한 팀이 되어 각자의 부채를 기계적인 표현이 아닌 손으로 쓴 아름다운 글자체를 의미하는 캘리그래피를 활용해 개성 있게 꾸미는 사람책 열람행사로, 참가 신청은 7월 16일(금)까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daegu.go.kr/jungang>)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족 2인을 1팀으로 총 10팀을 모집한다.

한편 사람도서관은 종이책이 전달하는 지식과 정보를 넘어 사람책의 생생한 지식, 경험 등을 대출자와 대화형식으로 진행하는 나눔·소통·공감의 신개념 도서관 서비스로, 중앙도서관에서는 2014년부터 259명의 사람책이 활동 중이다.

문의) 053-231-2049

<자료제공:중앙도서관>

인어아가씨

본방 월~금 8시30분
재방 월~금 20시 / 토,일 10시

은실이

본방 월~금 1시
재방 월~금 17시 / 토요일 1시

주몽

본방 월~금 14시
재방 월~금 23시 / 토,일 18시30분

채널 번호안내

www.highlightTV.co.kr

대구푸른방송 하이라이트TV

· 디지털 58번 · 아날로그 35번

진천초, 다양한 언택트 학교도서관 여행

학교도서관 여행으로 책과 더 가까워져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대구진천초등학교(교장 박세숙)는 다양한 언택트 학교도서관 행사를 통해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

진천초등학교는 작년과 올해 에듀테크 활용 중점학교로 선정되어 학생들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자책들을 구비해두었으며, 이를 홍보하기 위해 ‘학교 전자도서관 이용하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를 통해 전자도서관

을 이용하는 방법을 익힌 학생들이 꾸준히 전자책을 대출하여 어디서나 편하게 독서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새로 구입한 도서를 학생들이 골고루 읽을 수 있도록 ‘신간도서 럭키박스 행사’를 진행해 학년에 맞는 책을 사서가 추천해 랜덤으로 대출해주었다. 이를 통해 평소 본인이 고르지 않던 분야의 책들도 접할 수 있게 되어 책에 대한 흥미가 더욱 넓어지는 효과가 있었다.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원활한 가족 소통을 위해 ‘우리 가족 독서 챌린지’ 행사도

진행했는데,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책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 뿐 아니라 가족 모두의 독서 습관을 강조했다.

이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혼자 독서할 때보다 함께 모여서 읽으니 독서가 지루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종종 가족이 함께 모여 책 읽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고 즐거워했다.

박세숙 교장은 “꾸준한 독서를 통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코로나19 시대에도 학생들이 꾸준히 독서에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학교에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진천초등학교는 2학기에

‘도서 원화 전시회’, ‘책 처방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자료제공 진천초등학교〉

더운 여름, 시원한 도서관에서 그림책과 북강스를 즐겨요

대구2·28기념학생도서관, 방학 중 학교도서관으로 찾아가는 ‘여름 독서교실’ 운영

대구2·28기념학생도서관(관장 황윤애)은 여름방학을 맞아 책과 놀이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독서흥미를 키우고, 다양한 독서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으로 찾아가는 여름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7월 7일(수)~8월 19일(목)까지 대구 관내 17개 초등학교(1~3학년, 225명)를 찾아가 운영하는 여름 독서교실은 시원한 도서관에서 재미있는 책과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북강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사서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2일간 진행하는 여름 독서교실 첫째 날에는 ▲도서관을 알고,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어서 와요 학교도서관에!’ ▲사서와 학생이 함께하는 ‘책 읽기 좋은 시간’, 둘째 날에는 ▲책 장면을 활용한 메모리 게임과 태블릿PC로 대구학생전자도서관을 이용해보는 ‘놀이로 여는 책’ ▲그림책을 읽고 독후활동으로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보는 ‘조물조물 그림책’으로 구성

됐다. 활용 도서로는 ‘수박수영장’, ‘뽕뽕뽕’, ‘말뚝수의 전설’, ‘할머니의 여름휴가’ 등 제목만으로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림책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 독서교실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학교 출입 시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상시 착용, 손 소독 등 생활속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업 진행 방법도 학생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진행된다.

황윤애 관장은 “코로나19 상황 속 맞이한 여름 방학에,



멀리 떠나기 어려워 아쉬울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다양한 책놀이와 독서활동으로 신나

는 여름방학, 북강스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2·28기념학생도서관〉


애니박스 디지털 182번

채널J 디지털 123번
CHANNEL


상서중 탁구부, 10여 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

제67회 전국종별탁구대회 여중부 우승

상서중학교(교장 양대석)는 6월 29일부터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1주일간 열린 제67회 전국남녀종별탁구대회 여중부 대회에서 영천여중을 3대 2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총 11개 팀 1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했고, 상서중 박다현 코치는 우수지도자상을 수상했다.

1차전에서 부전승, 2차전 호수돈여중을 꺾고 4강에 진출한 상서중 탁구부는 4강에서 재작년 이 대회 우승팀인 경기도 청명중을 3대 1로 꺾으며 기세 좋게 결승에 진출했다.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는 경북 영천여중을 맞아 첫 개입을 내주는 등 위기가 있었

지만,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과 단단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결국 3대 2의 극적인 역전승을 이끌어 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2년 만에 열린 종별선수권대회는 대한탁구협회에 등록된 선수라면 누구에게나 출전 기회가 열려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엘리트선수권대회로 연말 종합선수권과 함께 ‘선수권’의 타이틀을 내거는 유이한 대회로서 오랜 역사만큼이나 우승팀에게 주어지는 명예도 드높다.

상서중 탁구부는 1학년 3명(서예진, 서현지, 이아윤), 2학년 3명(서지민, 조아라, 김아수), 3학년 2명(장운원, 신다미)의 총 8명의 선수로 구



성되어 있으며, 박태준 감독(체육교사)과 박다현 코치의 지도 아래 이번 대회를 충실히 준비해 왔다.

이번 대회를 마친 박태준 감독은 “10여 년 만에 전국 최대 규모의 대회에서 우승하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 코로나

19로 여의지 않은 훈련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정신력과 팀워크로 이끌어 낸 우승이라 더욱 값지다”라고 우승소감을 전했다.

상서중 양대석 교장은 “코로나 19로 교내외 훈련이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과 감독, 코치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낸다. 이번 우승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대구 지역 탁구명문 상서중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자료제공:상서중학교〉

세현초, 개그맨 안상태와 함께

초등학생 눈높이 맞춤형 저작권 교육

세현초등학교(교장 김승희)에서는 지난 6일(화) 4~6학년 314명을 대상으로 교과수업과 연계한 ‘2021년 정품이 흐르는 교실’을 운영했다.

‘정품이 흐르는 교실’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주최하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저작권의 개념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된 초등학생 대상 저작권 프로그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위촉한 SW저작권 특별강사인 개그맨 안상태가 학생들에게 실생활과 밀접하지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저작권을 알렷다.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담은 ‘저작권 교육 만화’를 사전과제로 제시해 초등학생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저작권을 친숙하게 다가가게 했다.

저작권에 대한 개념, 저작

의 종류, 저작권 침해 사례, 대처방법 등 다소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이뤄지는 특별강사의 교육과 현장감을 살릴 수 있는 퀴즈를 통해 자연스럽게 저작권의 중요성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이번 저작권교육에 참여한 4학년 학생은 “개그맨 선생님이 직접 우리학교로 방문하여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방송실



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아쉬움도 남는다. 그래도 실시간 온라인으로 친구들과 함께 퀴즈를 풀면서 재미있게 저작권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좋았고 생활에 꼭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현초 김승희 교장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저작권이 무엇인지?’ 또 ‘저작권의 올바른 이용 방법이 무엇인지?’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유익한 수업이 됐다”고 말했다.

〈자료제공:세현초등학교〉



대구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2021 시민행복콘서트’

7월 16(금)~17일(토) 오후 7시 30분, 코오롱야외음악당, 무료공연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오는 16일(금)~17일(토) 오후 7시 30분, 양일간 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의 시민행복콘서트를 선보인다.

시민행복콘서트는 대구문화예술회관 상주 시립예술단 4개 단체(국악단, 무용단, 극단, 소년소녀합창단)의 연합 공연으로 매년 여름 시민들을 만나오고 있다.

16일에는 소년소녀합창단, 한국무용, 시립무용단, 시립극단의 무대를 17일에는 시립국악단의 국악관현악 무대로 시민들에게 힐링의 밤을 선사할 예정이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관객과 공연자 모두가 안전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7월 16일(금)에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국악단 한국무용팀, 시립무용단, 시립극단의 출연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인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_김유환)이 신나고 발랄한 무대를 시작으로, 시립국악단 한국무용팀이 ‘오고무’를 선보이고 이어서 시립무용단(안무_김성용)의 현대무용 ‘레드베리에이션(RED VARIATION)’이 무대에 오른다. 마지막으로 대구시립극단(연출_정철원)의 뮤지컬 갈라쇼



대구시립극단 공연(제공: 대구시립극단)

무대로 첫째날을 마무리 한다.

7월 17일(토)에는 대구시립국악단(지휘_이현창)이 출연하여 신명나는 국악무대를 선보인다. 국악관현악 곡을 비롯해, 성악과 국악관현악, 해

금협주곡, 소리와 국악관현악, 사물놀이와 국악관현악 등 다채로운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

소프라노 이주희, 테너 노성훈이 함께하고, 소리에 양수

진, 예나경, 김단희 등이 출연해 대구시립국악단과 함께 흥이 넘치는 무대로 시민들에게 국악과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자료제공:대구문화예술회관〉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뮤지컬 ‘꼬마버스 타요’

봉산문화회관(강기도 관장)은 2021년 봉산문화회관 우수 공연 시리즈 I 가족뮤지컬 ‘꼬마버스 타요’를 7월 17일(토) 오후 3시 봉산문화회관 가운홀에서 진행한다.

가족뮤지컬 ‘꼬마버스 타요’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연으로 아동과 어린이의 올바른 안전한 교통 이용 교육을 위해 버스와 교통수단을 애니메이션화한 작품으로 EBS에서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2010년

최초 방송 때부터 유아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뮤지컬에는 시골버스로 재탄생한 꼬마버스 타요와 친구들이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기 위해 펼쳐지는 요절복통 대소동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꼬마버스 친구들과 더욱더 신나는 음악과 율동의 향연으로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줄 것이다.

봉산문화회관은 이번 공연을 전 연령층이 입장 가능하도록 진행하며, 공연장 입장



시 발열체크 및 거리두기 좌석제를 시행 객석 운영율 50%로 제한해 195석만 한정 판매하며 봉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및 티켓링크에서 예매 가능하다. 〈자료제공:봉산문화회관〉

계명대 동산병원 세 작가 ‘꿈’에 관한 이야기 담아

‘내가 잠든 사이에’ 미술전시회

계명대 동산병원(병원장 조치흠)이 7월 2일부터 한 달간 병원 곳곳에서 ‘신나는 예술여행-내가 잠든 사이에’ 미술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미술전은 ‘꿈’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세 명의 작가들의 개성이 잘 드러난다. 장하운 작가의 ‘낮과 밤’, 정진경 작가의 ‘발견의 즐거움’, 정민제 작가의 ‘가든 옛 흙’ 등 작품들을 통해 환우들을 꿈의 여행으로 초대한다. 낮 시간과 밤풍경에 대한 인식, 빛의 변화 관찰, 일상의 오묘제 등에서 그들이 전달하는 꿈의 이야기를 느껴볼 수 있다.

병원 1층 로비와 에스컬레이터, 2층 아프리움, 5층 공간에 각각 전시되어, 입원환자 및 내원객들에게 갤러리 같은 문화예술 감상의 시간을 선사한다.

〈자료제공:계명대 동산병원〉



CHANNEL CHINA

명품중드채널 채널차이나 개국 5주년

5년동안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 다양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채널번호안내 푸른방송 알뜰형 56-1, 디지털 121번

www.chchina.co.kr

(주)씨엔티브이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3-1 대오빌딩 12층 | 채널차이나 채널사업본부 02-368-2207



달성문화센터, 클래식 음악극 ‘반짝반짝 별이 된 모차르트’

달성문화재단은 7월 17일 (토) 달성문화센터 백년홀에서 클래식 음악극 ‘반짝 반짝 별이 된 모차르트’ 공연을 개최한다.

총 2회(2, 5시) 60분 공연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민간 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선정에 따라 마련됐으며, 음악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업적을 이룬 작곡가 모차르트의 예술세

계를 연극과 라이브 연주를 통해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서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전방위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독주곡과 협주곡, 오페라 등 모차르트가 남긴 다양한 장르의 명곡들을 클래식 전문 연주자들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으며, 모차르트가 활동했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의상과 분장, 연극을 접목해 누구나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는 클래식 음악극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공연은 만 5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안전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달성문화재단 서정길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클래식 음악의 저변확대와 함께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그림앤톡(grimm&talk) 展’

달성군 내 7곳 초등학교 참여, 그림 35점 전시

달성군(군수 김문오)에서는 참꽃갤러리 아흔한번째 마중으로 7월 29일까지 참꽃갤러리 특별기획전 ‘그림앤톡(grimm&talk)展’이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달성군민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해 전시 및 관람의 주인공이 되는 참꽃갤러리에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주제를 정하여 순수함과 상상력으로 꾸며진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달성군 내 초등학교 저학년층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받아 초등학교 7곳에서 참여했고, 총 35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 주제는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모습, 여름에 시원한 수박을 먹는 모습, 나의 생일날, 좋아하는 책을 읽는 모습 등 아이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 아이들만의 순수함과 상상력이 더해져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됐다.

달성군청 관계자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기에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들이 모두에게 전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자료제공:달성군청〉



매곡초 2-4 김가빈

대구역 지하상가 ‘紙, 꿈을 꾸다’

대구시설공단이 대구역 지하상가에서 8월 5일까지 ‘紙, 꿈을 꾸다’라는 주제로 북아트 전시회를 개최한다.

대구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대구역 지하상가는 유희공간

을 활용해 매월 다양한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이색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7월 2일~8월 5일까지 35일간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공예연구소 Studio Ahn의 소

속작가 11명의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紙, 꿈을 꾸다’라는 타이틀의 전시회는 작은 구멍사이로 그림책의 풍경을 재현한 ‘터널북’, 360도로 펼쳐지는 별모양의 ‘별북’ 등 다양한 북아트 기법으로 동화책을 표

현했다.

대구시설공단 최길영 이사장은 “시민들을 위한 이색 볼거리 제공과 지역 작가 전시 기회 제공, 지하상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소형화물에서 원룸이사까지

#김이사용달 #화물전문 #각종배달 #싸요싸요 #이사전문 #믿음신뢰

김상일 010-8674-2040


<https://blog.naver.com/m414141/222082589543>

MBC+
CREATIVE MEDIA GROUP



MBC every1

국내 최고 버라이어티 채널

MBC SPORTS

대한민국 No.1 스포츠 채널

KBO리그



오!주인님

MBC Drama

드라마로 꿈꾸는 세상

MBC M

내 손 안의 즐거움

주간아이돌



"Fun Again!"



MBC ON

다시보는 감동, 함께하는 재미

MBC+
CREATIVE MEDIA GROUP



대구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속 대응’

이상반응대응팀 신설 및 민간 역학조사관 확충 추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이상반응 의료비 추가지원 적극 검토

대구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단장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전 시민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에 맞춰 이상반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상반응대응팀 신설, 민간 역학조사관 확충, 이상반응 모니터링 서비스 등 이상반응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대구시는 7월 5일(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 내에 팀장, 팀원 2명, 역학조사관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

된 이상반응대응팀을 신설했다.

신설팀은 예방접종 후 신고된 중증이상반응 사례, 아나필락시스 등에 대한 역학조사 및 피해보상 지원,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또, 이상반응 전문가위원회를 주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함과 동시에 이상반응 역학조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민관 합동 역학조사관 인력풀’을 구성 중이다.

현재 역학조사관으로 근무 중인 공중보건과의사와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또는 전문의로 구성해 중증 이상반응 신고에 따른 의무기록 확보, 역학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고, 인력풀 구성을 위해 대구시 의사회, 상급종합병원 등 관련 의료기관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5월 17일부터 시행된 질병관리청 최종심의 결과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4-1)된 중



증 환자의 정부지원 초과분에 대한 ‘추가 의료비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정보제공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이상반응 모니터링 서비스(누구 백신 케어콜)를 12일(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현재는 전국 접종 완료자가 11%이지만, 7~8월 일반 시민들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대구시도 적극적인 이상반응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접종을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건강칼럼



보생조한의원 원장 조현정



더운 여름, 찾아오는 손님 ‘대상포진’

더위와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대상포진(帶狀疱疹)이다.

고령일수록 발생 빈도가 높지만,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생활로 인해 젊은 층에서도 대상포진 환자들이 많다. 특히 더위와 장마로 인해 기력이 떨어지는 초여름에는 대상포진으로 한의원을 찾는 환자가 늘어난다. 대상포진은 수두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하고 있다가 과로, 과격한 운동, 극도의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대상포진예방접종을 한 경우 바이러스가 활성화 되어 발병한다.

초기에는 감기몸살처럼 발열오한만 나타나기도 하고 물집이 생기지 않아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대상(帶狀)이라는 병명에서 알 수 있듯 신경을 따라 띠(帶)를 두르듯 통증과 수포가 특징이며, 손만 갖다 대도 아플 정도의 강한 통증을 호소한다. 통증이 발생하고 3~5일 후 피부 발적(發赤), 물집이 몸의 한쪽에만 생긴다. 이 수두바이러스가 안면부를 침범하는 경우 램세이헌트증후군(Ramsay-Hunt Syndrome)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마비와 함께 외이도, 고막에 포진을 일으키며, 극심한 통증과 함께 이명, 어지러움이 발생하고 후유증이 잘 남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보통 대상포진으로 진단받으면 항바이러스제의 복용과 함께 증상에 따라 수액을 맞거나 진통제를 복용하게 된다. 이때 항바이러스제로 바이러스를 약화시키면서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한약 치료를 병행하면 효과가 더욱 좋다.

‘면역력저하=보약(補藥)’의 공식으로 체질과 상태를 보지 않고 한의사의 처방 없이 한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기력이 떨어진 경우 보기(補氣)를, 몸의 밸런스가 깨어져 면역력이 떨어지고 상열(上熱)되어 있는 경우에는 올라간 열을 내리고 순환을 시키는 처방 등을 사용하여 각 환자의 몸에 맞는 처방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스트레스를 받아기가 뭉치고(氣鬱), 과열되어 있는 환자라면 열을 식히고 풀어줘야 기운이 돌아오고 면역력이 올라간다. 그저 보약만을 사용한다면 오히려 막힌 곳을 더 막아 터지는 상태가 될 것이다. 한약뿐 아니라 침, 뜸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통증관리와 회복이 더욱 빨라진다.

대상포진에 걸리면 포진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신경통이 남거나 피부에 반흔이 남는 등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하며, 감염 초기에 수포를 터트리거나 환부를 긁어서는 안 된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평상시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영양가 있는 식단,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다. 날이 더워지면 차가운 음료나 음식이 생각나기 마련이다. 자주 먹게 되면 속을 냉하게 만들어 배탈 및 소화기 능력저하를 일으키고 나아가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실내 습도와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여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

대구시달서구 달구벌대로 1607 / 보생조한의원 ☎053-564-0401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담배연기 없는 대구’

대구시와 대구금연지원센터가 3~11월까지 두류공원 문화에술화관 앞에서 금연캠페인을 운영한다.

두류공원 금연 캠페인은 3월부터 매달 1회씩 운영 중이다. 대구시와 대구금연지원센터가 함께하며 금연문화 확산으로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실천으로 흡연을 감소를 통한 시민 건강증진 효과를 기대한다.

캠페인에서는 대상자 맞춤형 금연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며, 금연캠프 입소자 신청을 받고 해당 주소지 보건소의 비대면 금연클리닉을 안내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페이스실드, 마스크, 장갑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워크스루, 무인 홍보 부스 운영 등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을 운영한다.

그리고 대구시 구·군 보건소에서는 방문하지 않고도 금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금연클리닉을 운영 중이며, 대구금연지원센터는 중증고도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연캠프, 금연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청소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금연지원서비스 등을 운영한다.

김대영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흡연자는 금연실천을, 비흡연자는 주변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한 지지자로 나서야 한다”며, “담배연기 없는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민분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7월 19일 ~25일



재미로 보는 운세



36년생 서두르지 말고 참고 견뎌야 할 때다. 48년생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생긴다. 60년생 실속 없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마라. 72년생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84년생 노력한 만큼의 성공을 얻게 된다. 정성을 들여야 한다. 96년생 생각보다 피곤해지고 일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쯤에서 정리하라.



37년생 도움을 얻게 되니 어려운 일이 없다. 49년생 힘든 시기이지만 바른 선택을 한다. 61년생 규칙을 어기면 망신을 당할 수 있다. 73년생 일부터 일을 만들지 말고 그냥 쉬어라. 85년생 계획이 너무 많아서 이루기 어렵다. 정리가 필요하다. 97년생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버텨야 한다. 지금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38년생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이다. 50년생 아랫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62년생 마음이 불편하니 새로운 일 하지마라. 74년생 어려울 때 일수록 신용을 지켜야 한다. 86년생 잘못된 일을 빠르게 고치니 운이 열린다. 변화가 중요하다. 98년생 귀찮은 일이라고 해도 진행을 제대로 해야 한다. 나중에 후회를 한다.



39년생 규칙을 지키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51년생 욕심이 앞서서 큰일을 그르칠 수 있다. 63년생 오랫동안 알던 사람이 도움을 주게 된다. 75년생 누군가 도움을 주지만 이성 관계에 주의하라. 87년생 노력을 해야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된다.



40년생 자신의 말과 행동에 주의해야 할 때다. 52년생 한 번 손댄 일은 끝까지 밀고 가라. 64년생 자신의 실수를 줄여야 좋은 결과가 있다. 76년생 오랫동안 자리를 지킬 때 운이 좋아진다. 88년생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 시간을 끝지 말라.



41년생 기분 나쁜 일이 생겨도 화내지 마라. 53년생 독한 마음을 먹어야 손해가 없다. 65년생 자신을 바르게 하고 남을 지적하라. 77년생 주변 사람들과 다투면 일이 안 된다. 89년생 일의 순서가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42년생 다른 사람을 도와야 자신의 일도 풀린다. 54년생 기초가 튼튼해야 어려운 일도 쉽게 한다. 66년생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쳐나가야 한다. 78년생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변을 배신하지 마라. 90년생 다른 사람을 속이면 나에게도 해롭다. 신뢰가 중요하다.



43년생 자신의 노력만큼 일이 쉽게 풀린다. 55년생 준비가 철저하면 어려운 일이 없다. 67년생 모든 일에 의욕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79년생 위아래가 화합하니 못하는 일이 없다. 91년생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기다려야 한다.



44년생 모든 일에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56년생 욕심을 버리면 작게 얻고 크게 잃는다. 68년생 마음이 흔들리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 80년생 지금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92년생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잠시 피하는 것이 좋다.



45년생 거짓말을 하면 오히려 일이 더 꼬인다. 57년생 운이 바닥을 치니 이제 올라가게 된다. 69년생 시작부터 꼬인 일은 마무리도 힘들다. 81년생 자신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라. 93년생 규칙을 어기지 않아야 이득도 생긴다. 편법을 멀리하라.



46년생 신뢰를 잃으면 모든 일에 장애가 생긴다. 58년생 작은 의심이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다. 70년생 급한 일은 뒤로 미루지 말고 빨리 해결하라. 82년생 자신의 실수에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 94년생 말조심을 하지 않으면 난감해질 수 있다.



47년생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일이 잘된다. 59년생 고생한 만큼 보상도 생기는 때이니 노력하라. 71년생 잘못된 것은 고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83년생 잘못된 과거는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라. 95년생 자신이 직접 나서면 될 일도 안 된다. 주변사람을 이용하라.

제공: 당신의멘토, 운조아(www.unjoa.com)

주간 일기예보

7월 15일 목요일



최저 24℃
최고 34℃

7월 16일 금요일



최저 23℃
최고 32℃

7월 17일 토요일



최저 22℃
최고 31℃

7월 18일 일요일



최저 22℃
최고 31℃

7월 19일 월요일



최저 23℃
최고 32℃

7월 20일 화요일



최저 23℃
최고 34℃



시시상식 섷다운제

☞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심야게임 규제(청소년보호법 제26조)로, 2011년 11월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온라인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이다.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면 신데렐라의 마법이 풀리듯, 자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신데렐라법'이라고도 한다.

여성이족부는 2011년 11월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강제적 섷다운제를 도입·시행하였다. 이에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제26조 1항),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59조)에 처해진다. 단,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서 이용 가능한 모바일 게임은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적다는 판단하에 섷다운제 적용을 유예하였다.

그러나 섷다운제는 국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킨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고 있으며 실제로 청소년의 게임사용 시간을 억제하지도 못했다고 평가된다. 즉,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게임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해외 온라인 게임으로 이용자들이 몰려들면서 국내 게임 산업 규모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섷다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가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섷다운제를 부모섷택제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2016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계류 끝에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시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한번에 받으니까 더 놀라운 혜택

현명한 선택
결합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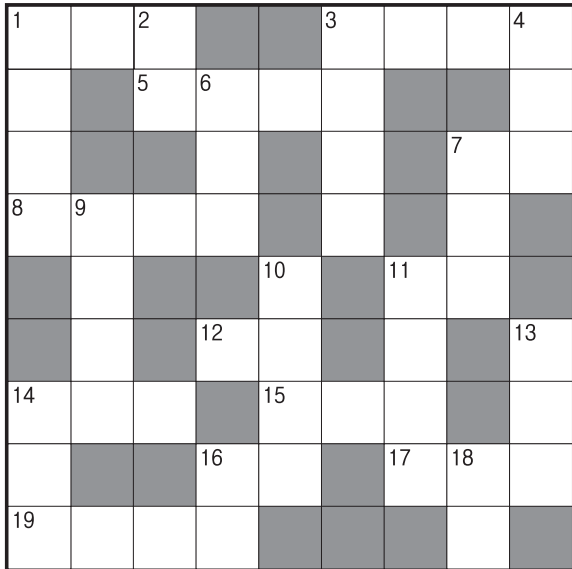


지금바로! (053) 551-2000 www.gcs.co.kr



제1,033회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①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낱말퍼즐을 만들어 푸른신문으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께는 작은 선물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곳: 42640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323길 13 (감삼동) 3층 푸른신문 편집부 앞
E-mail:pr5726000@naver.com

→응모엽서에 성명과 우편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세요.

▶정답자 발표 : 1,181호

<가로열쇠>

1. 멀리 돌지 않고 가깝게 질러 통하는 길. 이 고개가 집과 학교를 연결하는 ○○○이다.
3. 따위를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자주 망설이며 몹시 흐리멍덩하게 하는 모양.그녀는 ○○○○ 망설이다가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5. 잘 매만져 곱게 꾸미는 데 쓰는 여러 가지 재료.
7. 졸리거나 고단하거나 배부르거나 할 때, 절로 입이 벌어지면서 하는 깊은 호흡.
8. 현재 사회를 이끌어 가는 나이가 든 세대.
11. 엄지로 종지의 끝부분을 뒤편하거나 한 손으로 다른 손의 종지를 잡아당긴 뒤 놓아 그 탄력으로 이마 따위를 때리는 행위.
12. 남자로 태어난 자식.
14. 조금 떨어진 어느 때부터 다른 어느 때까지의 비교적 짧은 동안. ○○○를 못 참아 일을 이따위로 만들어 놔?
15. 못난 사람이나 사물 또는 언짢은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빛 좋은 ○○○'. 겉보기에는 먹음직스러운 빛깔을 띠고 있지만 맛은 없는 ○○○라는 뜻으로,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6. 짐승을 잡아서 받은 피. 식어서 굳어진 덩어리를 국이나 찌개 따위의 재료로 쓴다.
17. 무리를 다스리거나 이끌어 가는 지도자로서의 능력.
19. 아니꼬울 정도로 인색한 사람을 얹잡아 이르는 말. 그는 밥상에 굴비를 달아 놓고 쳐다보며 밥을 떠먹는 ○○○이다.

<세로열쇠>

1. 적의 사정과 나의 사정을 자세히 앎. '손자_모공편'에 나온 말이다.
2. 길에 대한 감각이나 지각이 매우 무디어 길을 바르게 인식하거나 찾지 못하는 사람.
3. 우리 한민족이 세운 나라를 스스로 이르는 말.
4. 노력이 헛되게 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온갖 노력이 ○○○이 되다.
6. 장독 따위를 놓아두려고 뜰 안에 좀 높직하게 만들어 놓은 곳.
7. 해가 지고 나서 다음 날 해가 뜰 때까지의 동안. 그는 ○○○ 사이에 눈이 쑥 들어가 버렸다.
9. 다른 사람의 목소리나 새, 짐승 따위의 소리를 흉내 내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0. 버드나무의 꽃.
11. 삼림에 살며 날카롭고 단단한 부리로 나무에 구멍을 내어 그 속의 벌레를 잡아먹는 새.
13. 피부의 상호 접촉에 의한 애정의 교류. 육아 과정에서 아버지와 자식 사이, 또는 유아의 보육이나 저학년의 교육에서 교사와 어린이 사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14. 물체가 빛을 가려서 그 물체의 뒷면에 드리워지는 검은 그늘.
16. 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며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관직과 재물을 탐내지 않는 고결한 인품을 지닌 사람을 이르는 말.
18. 여름철의 더운 기운.



<1,031회 정답>

가	르	마	어	영	부	영
장	루	브	르	국	모	
자	식	신	호	등	통	
리	자	국	화	풀	이	
	천	경	기	체	가	
	일	주	일	친	눈	
수	염		꼭		망	
전	사	각	지	대	방	울
노	젓	돈	기	저	귀	

♣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본사 편집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월 27일까지 도착된 엽서 중에서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당첨상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1,031회 퍼즐 상품 받으실 분

※ 당첨상품은 우송해 드립니다.



박진호(달성군 가창면)
안용환(달서구 학산로)

정판권(동구 화랑로)
김지우(달서구 감삼동)

서상섭(달서구 본동)
홍나은(달서구 송현동)



최상진
(달성군 화원읍)
이원두
(달성군 다사읍)



푸른신문

www.prsinmun.co.kr

대표전화: (053) 572-6000 팩스: (053) 572-6006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323길 13(감삼동) 3F
(우편번호: 42640)

- ▶등록일 2000년 10월 17일 ☑은행계좌입내
- ▶등록번호 대구 다 01130 SC제일은행 556-20-214625
- ▶간별 주간 예금주: 푸른신문(사법체)
- ▶인쇄처 미디어프린팅넷(株)
- ▶발행인 서범석
- ▶편집인 서범석

*구독료 1년 12,000원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풍성하게! 다양하게! 편리하게!

푸른방송 채널안내

※2021. 07. 05. 기준

HD국민형방송

번호	채널명	장르
1-1	푸른방송	지역채널
2-1	EBS플러스1	교육
3-1	EBS플러스2	교육
5-1	tvN	오락
6-1	EBS	지상파
6-2	EBS2	지상파
7-1	KBS2	지상파
8-1	CJ온스타일	홈쇼핑
9-1	KBS1	지상파
10-1	롯데홈쇼핑	홈쇼핑
11-1	MBC	지상파
12-1	GS SHOP	홈쇼핑
13-1	TBC/SBS	지상파
14-1	NS홈쇼핑	홈쇼핑
15-1	현대홈쇼핑	홈쇼핑
16-1	홈쇼핑	홈쇼핑
17-1	JTBC	중편
18-1	채널A	중편
19-1	TV조선	중편
20-1	MBN	중편
21-1	공영쇼핑	홈쇼핑
22-1	SBS Biz	경제
22-2	SK stoa	홈쇼핑
23-1	연합뉴스TV	보도

번호	채널명	장르
24-1	YTN	보도
25-1	한국경제TV	경제
25-2	W쇼핑	홈쇼핑
26-1	MBC에브리원	오락
26-2	MBC ON	오락
26-3	K쇼핑	홈쇼핑
27-1	Mnet	음악
27-2	채널다이하	오락
28-1	iHQ	오락
28-2	쇼핑엔티	홈쇼핑
29-1	XtvN	오락
30-1	스크린	영화
30-2	인디필름	영화
31-1	OCN	영화
31-2	CJ온스타일플러스	홈쇼핑
32-1	OCN 무비즈	영화
32-2	Mplex	영화
32-3	더무비	영화
33-1	CNTV	드라마
34-1	K Star	오락
35-1	하이라이트TV	오락
36-1	JTBC2	오락
36-2	JTBC4	여성
37-1	CMCTV	오락

번호	채널명	장르
37-2	채널이엠	시니어
38-1	KBS JOY	오락
39-1	디원	드라마
39-2	Fun TV	오락
40-1	SBS플러스	드라마
41-1	드라마X	드라마
42-1	KBS드라마	드라마
43-1	MBC드라마넷	드라마
44-1	JTBC골프	스포츠
45-1	SBS스포츠	스포츠
45-2	SBS골프	스포츠
46-1	KBSN 스포츠	스포츠
46-2	SPOTV	스포츠
47-1	MBC스포츠+	스포츠
48-1	스카이스포츠	스포츠
49-1	FTV	취미
50-1	투니버스	키즈
51-1	JETI재능TV	키즈
52-1	챔프	키즈
52-2	애니맥스	키즈
53-1	애니박스	키즈
54-1	O tvN	여성
54-2	OGN	게임
55-1	리얼TV	오락

번호	채널명	장르
56-1	채널차이나	드라마
57-1	내셔널지오그래픽	다큐
58-1	SBS funE	오락
59-1	올리브	여성
60-1	EDGE TV	오락
61-1	KBS STORY	여성
62-1	tvN STORY	여성
63-1	아이넷	음악
64-1	이벤트TV	음악
65-1	GTV	여성
65-2	SBS MTV	음악
66-1	OCN 스틸즈	영화
67-1	MBC M	음악
68-1	상생방송	종교
69-1	BTN불교TV	종교
70-1	가톨릭평화방송	종교
71-1	CTS기독교TV	종교
71-2	CBS	종교
72-1	한국직업방송	정보
73-1	복지TV	복지
74-1	사이언스TV	정보
95-1	OUN	교육
96-1	국회방송	공공
97-1	KTV	공공

디지털케이블방송

상품 번호	채널명	장르
E 0	케이블 TV VOD	가이드
E 1	푸른방송	지역채널
E 2	EBS2	지상파
B 3	MBC 에브리원	오락
E 4	쇼핑엔티	홈쇼핑
E 5	TBC / SBS	지상파
E 6	GS SHOP	홈쇼핑
E 7	KBS2	지상파
E 8	CJ온스타일	홈쇼핑
E 9	KBS1	지상파
E 10	롯데홈쇼핑	지상파
E 11	MBC	지상파
E 12	NS홈쇼핑	홈쇼핑
E 13	현대홈쇼핑	홈쇼핑
E 14	JTBC	중편
E 15	EBS	지상파
E 16	MBN	중편
E 17	홈쇼핑	홈쇼핑
E 18	채널A	중편
E 19	TV조선	중편
E 20	tvN	오락
E 21	공영쇼핑	홈쇼핑
E 22	신세계쇼핑	홈쇼핑
E 23	연합뉴스TV	보도
E 24	YTN	보도
E 25	OCN	영화
E 26	XtvN	오락
E 27	Mnet	음악
E 28	드라마X	드라마
E 29	E채널	오락
E 30	OCN 무비즈	영화
유료 31	캐치온	영화
E 32	OCN 스틸즈	영화
E 33	O tvN	여성
E 34	스크린	영화
E 35	tvN STORY	여성
B 36	AXN	영화
B 37	Mplex	영화
E 38	현대홈쇼핑플러스샵	홈쇼핑
E 39	SBS플러스	드라마
E 40	K쇼핑	홈쇼핑
E 41	KBS드라마	드라마
E 42	W쇼핑	홈쇼핑
E 43	MBC드라마넷	드라마
B 44	JTBC2	오락
E 45	SK stoa	홈쇼핑
B 46	드라마큐브	드라마
E 47	NS Shop+	홈쇼핑
E 48	채널다이하	오락
E 49	올리브	여성
B 50	JTBC4	여성
E 51	CNTV	드라마
E 52	드라마H	드라마
B 53	디원	드라마

상품 번호	채널명	장르
B 54	티브이조선2	정보
B 55	채널A플러스	정보
B 56	MBN플러스	정보
B 57	CMCTV	오락
B 58	하이라이트TV	오락
B 59	SKY	드라마
B 60	KBS JOY	오락
B 61	씨네프	영화
B 62	SBS funE	오락
E 63	K Star	오락
B 64	Fun TV	오락
B 65	GTV	여성
E 66	리얼TV	오락
E 67	OBS W	정보
E 68	Edge TV	오락
B 69	KBS Story	여성
E 70	트렌디	여성
B 71	NQO	오락
E 72	패션N	여성
E 73	MBC ON	오락
E 74	ONT	오락
E 75	ONCE	오락
유료 77	캐치온2	영화
B 78	인디필름	영화
B 79	더무비	영화
B 80	SBS Biz	경제
E 81	MTN	경제
B 83	토마토증권통	경제
E 84	한국경제TV	경제
B 86	채널숨	취미
B 87	넷지오와일드	다큐
E 88	넷지오피플	다큐
E 89	내셔널지오그래픽	다큐
B 90	다큐원	다큐
B 91	OLIFE	취미
B 92	SBS FIL	오락
B 93	채널 뷰	오락
B 94	채널나우	오락
B 95	채널유	드라마
B 96	채널이엠	시니어
E 97	청춘시대TV	가이드
E 98	씨네플러스	영화
E 99	뉴트로TV	시니어
B 100	아이넷라이프	시니어
B 101	TV조선3	오락
유료 103	플레이보이TV	성인
유료 104	허니TV	성인
유료 105	미드나잇	성인
유료 106	비키	성인
B 108	큐브TV	오락
B 109	SBS MTV	음악
E 110	MBC M	음악
E 111	아이넷	음악
E 112	이벤트TV	음악

E : 이코노미(114) / B : 베이직(186) / P : 프리미엄(201) / U : UHD전용채널(2) / 유료 : 유료채널(10)

상품 번호	채널명	장르
E 113	GMTV	음악
E 114	KTV	공공
B 115	바둑TV	취미
B 116	K바둑	취미
B 117	FTV	취미
B 118	Fishing TV	취미
P 119	빌리어즈TV	취미
E 121	채널차이나	드라마
E 122	중화TV	드라마
B 123	채널J	드라마
E 124	채널 칭	드라마
E 125	텔레노벨라	드라마
B 127	HQ+	오락
B 129	샌드박스 플러스	오락
B 130	히스토리	오락
B 131	실버아이	시니어
P 132	예술TV Arte	음악
P 133	MX	오락
B 134	iHQ	오락
P 135	ETN연예	오락
E 136	채널에버	오락
E 137	TV아시아플러스	오락
E 139	OGN	게임
E 140	STATV	오락
E 141	SBS스포츠	스포츠
E 142	KBSN 스포츠	스포츠
E 143	MBC스포츠+	스포츠
B 144	SBS골프	스포츠
B 145	JTBC골프	스포츠
B 146	JTBC GOLF&SPORTS	스포츠
E 147	스카이스포츠	스포츠
B 148	IB Sports	스포츠
E 149	SPOTV	스포츠
E 150	SPOTV 2	스포츠
E 151	SPOTV Golf & Health	스포츠
유료 152	SPOTV ON	스포츠
유료 153	SPOTV ON2	스포츠
E 155	BTN불교TV	종교
E 156	BBS불교방송	종교
E 157	CBS	종교
E 158	CTS기독교TV	종교
P 159	CGN TV	종교
P 160	Good TV	종교
E 161	가톨릭평화방송	종교
B 162	STB상생방송	종교
P 163	C Channel	종교
P 167	동아TV	여성
E 168	육아방송	공익
B 169	채널S	오락
E 170	Lifetime	오락
B 171	헬스메디	정보
B 173	뿌요TV	키즈
유료 174	잉글리시잼	키즈
B 175	디즈니채널	키즈

상품 번호	채널명	장르
E 176	투니버스	키즈
B 177	애니맥스	키즈
B 178	Baby TV	키즈
B 179	KBS Kids	키즈
E 180	어린이TV	키즈
B 181	애니플러스	키즈
B 182	애니박스	키즈
E 183	JETI재능TV	키즈
E 184	카툰네트워크	키즈
B 185	챔프	키즈
E 186	부메랑	키즈
E 187	Nickelodeon	키즈
유료 190	DOG TV	취미
E 191	브레인TV	취미
B 192	마운틴TV	취미
B 193	생활체육TV	취미
P 194	COOK TV	취미
U 200	UMAX	오락
U 201	UXN	오락
E 204	서울경제TV	경제
B 205	이데일리	경제
B 206	팍스경제TV	경제
B 207	매일경제TV	경제
P 209	YTN2	정보
B 210	소상공인방송	정보
B 211	폴리스TV	정보
B 212	쿠기건강TV	정보
B 213	TBS교통방송	정보
P 214	MBC NET	정보
E 215	리빙TV	정보
E 216	메디컬TV	정보
E 217	복지TV	복지
E 218	사이언스TV	정보
P 219	채널1	정보
E 222	국방TV	정보
E 223	국회방송	공공
P 225	한국직업방송	정보
P 226	한국농업방송	정보
B 227	MG소비자TV	정보
E 230	CNN International	해외
E 231	아리랑TV	해외
E 232	NHK WORLD PREMIUM	해외
E 233	Bloomberg	해외
E 234	CGTN	해외
E 235	CCTV 4	해외
E 240	EBS플러스1	교육
E 241	EBS플러스2	교육
E 242	EBS잉글리쉬	교육
E 244	JEI잉글리쉬	교육
P 245	위티브이	교육
E 246	OUN	교육

※UHD채널은 UHD전용상품 가입 설치 후 시청가능합니다.

가입문의 **551-2000** www.gcs.co.kr

※채널상품 및 채널번호는 관계법령과 방송사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